

중히 여겨야 한다. 그야말로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일어나야 할 이들은 청년 이외에는 없지 않은가. 병합 이래 30여 년을 경과했으니 적어도 40세 이하의 청·장년은 병합 이후의 일본의 훈육을 받았을 것이다. 모든 각도에서 이런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청년에게 가능한 많은 일을 주어 경험을 쌓게 하고 대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청년 연성의 아홉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청년의 연성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청년 연성소나 다양한 도장에서 연성하는 것 이외에 가정에서의 연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 대한 감화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아이에게 미치는 모친의 감화의 힘은 위대하다. 충신은 반드시 효행문에서 나온다. 가정의 주부는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늘 남편이나 자식들을 분발시키고 자식들과 함께 신단에 예배하고 라디오에서 야스쿠니신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듣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 아이에게 청소·정돈이나 논밭 돕기, 나아가서는 화장실 청소까지 시켜서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는 습관을 붙여 전장생활을 가정에 옮겨 제일선 장병들과 노고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 때부터 가정적 훈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연성의 열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년 연성의 근본 사상은 일본정신이고 근본적 훈련은 일본적 연성이다. ‘반도청년’들로 하여금 모두 폐하의 수족으로서 호국·흥아의 성업에 참가시켜 충렬한 훈공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일본적 종합 연성을 통한 일본정신의 체득에 노력해야 한다.

반도 동포들도 내지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폐하의 수족으로서 국방의 중책을 맡게 되는 이상,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하는 것 또한 내지 동포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야 비로소 대동아 건설, 나아가서는 세계 제편성의 지도자로서 세계에 웅비·활보하고 새로운 세계를 수리고성(修理固城)할 수 있다.

반도의 청년 학도들이여! 일어나라! 천황의 방패로서, 2,400만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천업익찬(天業翼贊)에.

16. 의무교육 실시와 교육령 개정

입학난으로 적령기 아동 중에서 교문을 두드리고 우는 자가 많은 반도에서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가 실시된다는 것이 발표되었을 때, 반도 2,400만 황민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는 헤아릴 수 없다. 의무교육제는 징병제와 창씨제와 함께 반도 2,400만의 황민화에 획기적인 단계를 만들고 있다.

사이토(齋藤) 총독시대의 이른바 3면(面) 1교(校) 계획이 조선 전체에 462개교의 보통학교 신설을 목표로 한 것으로, 우가키(宇垣) 총독시대의 1면 1교주의는 조선 전체에 1,074개교의 신설, 17만 2,000명의 신 취학아동의 획득이 목표였다. 그리고 미나미(南) 총독시대에는 1만 학급 70만 명의 취학아동의 증가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동안 1938년 4월에 보통학교는 일본 내지인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소학교로 개칭되었고 나아가 1941년 4월에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라고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고이소(小磯) 총독은 이번 의무교육제 실시를 발표하는 동시에 제3차 보급확충 계획과 국민학교 교원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게 되었고, 1946년도까지 9,809개교를 증설하여 학령 아동 남자 90%, 여자 50%, 평균 70%로 약 47만 명의 취학아동을 새로 획득할 계획이며, 현재의 평균 취학률 44%와 대비해서 대대적인 확충 계획에 대응하는 국민학교 교원양성 계획은 신 사범제 완성년도인 1947년

3월 말에는 현재보다 1,000명 내외의 국민학교 교원이 대량으로 양성되어 약 3,000명의 아동교육자가 배출될 예정이다.

이리하여 반도 아동의 황민 연성을 맡은 훈도의 대량 양성과 더불어 경성사범·경성여자사범은 전문 과정으로 승격되어 교원의 질적 향상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현재의 교원도 적당한 기간 재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민학교 훈도의 중대사명과 소질 향상에 대해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황도교육의 본의에 기초하여 대동아전쟁의 완수와 대동아 건설의 필성(必成)의 요청에 따라 국민학교제와 조응하여 황국의 길에 입각한 국민 연성의 일관적 체제를 정비하고, 아울러 교육 내용의 쇄신·확충 및 수업연한의 단축을 실시해서 교육의 국방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학제의 획기적 개혁이 단행된 것이다.

이리하여 작금의 결전체제에 적응하여 황민 연성의 일본 내지와 조선의 공통의 일관적 체제 확립을 목표로 조선교육령이 제8회째 개정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교학의 본의에 기초하는 진정한 일본적 교육 체제를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확립되었다.

특히 교육 내용의 근본적 쇄신에서는 중학교 및 사범학교에서 새로 교과목을 설치해 각 과목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종래에는 자칫 통일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던 각종 실천적 수련을 체계화해서 새로 수련 과정을 설치해 거행일체(舉行一體)·지덕상즉(知德相即)의 일본적 교육 양상을 현현하게끔 하는 바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 요점 가운데,

- ① 정신교육의 근원인 직유(勅諭)를 교과목 모두(冒頭)에 내세워 그 취급을 명확히 한 점
- ② 총검술·전장운동(戰場運動)을 보조 교재에서 본 교재로 옮긴 점

등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와 같이 학원은 황국신민 연성도장이고 내일의 전투력을 기르는 병영이다.

이처럼 의무교육제 실시, 신학제 채택 및 교육 내용의 근본적 쇄신은 반도 2,400만의 황국신민화를 완성함으로써 반도 황민으로 하여금 문무에 걸쳐 도의세계 건설에 응비·활보하도록 하는 근원을 만드는 점이 더욱 그 의의를 크게 하고 있다.

17. 국민학교는 ‘폐하의 적자’ 연성도장

우리 반도도 내지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가 되었고 의무교육도 실시될 예정인데, 본디 국민학교는 다른 학교와 더불어 황국의 길에 입각해 폐하의 적자를 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황도교육도장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례(奉禮)하고 총량한 황국신민의 자질을 수련·체득케 하는 것이다.

지금은 8년제 혹은 6년제이지만 의무교육 실시년도까지 8년제가 된다고 한다. 학과는 다섯 개로 나뉘는데, 모든 학과는 일체가 되어 황국신민 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올바르게 아름다운 생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더욱 밀접해져야 한다. 가령

국민과(國民科)의 수신(修身)에서는 황국신민으로서의 길을 가르쳐 맑고 올바른 일본인 양성에 노력하고, 역사에서는 만방에 비할 바 없는 우리 국체의 본의를 투철하게 주지시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리에서는 황토(皇土)를 잘 이해시킨다는 식으로, 자각한 황민을 연성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술·지리도 사물 현상을 올바르게 확실하게 고찰하도록 하고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보는 시각·사고방식·고안방식을 올바르게 발전시켜 실생활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리에서는 국방에 관한 상식을 기르도록 하고, 또 체련과(體鍊科)도 직능과(職能科)도 모두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체육·생활태도를 쌓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폐하의 적자를 맡아서 훈육하는 입장에 있는 교육자 자신이 먼저 황민적 연성을 강화하여 이 신성한 일에 정혼(精魂)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 환경이 맑고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과 애국반은 제2의 학교가 되어 아동들의 교육에 협력해야 한다.

이리하여 도야된 청소년들은 부름을 받고는 호국의 간성으로서 미·영 격멸전에 서야 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나서서는 대동아공영권, 아울러 도의세계 건설의 중견 전사로서 황모(皇謨)를 익친다. 그야말로 학교, 특히 국민학교는 황국 필승전력의 원천이자 황국의 혼연한 국민적 단결의 모태가 된다.

맑고 올바르게 강한 황국신민을 연성하여 이 아동들이 폐하의 수족으로서 세계 신질서 건설에서 추진·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길러야 한다.

그야말로 반도의 장래를 짊어지고 일어서야 할 중요한 층은 현재의 국민학교 아동들이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내선일체의 완성에 이 아동들이 중견이 되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보장된 일인 동시에 세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의 자질에서도 일본 내지의 형제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18. 식량증산과 황국농민도(皇國農民道)

대동아공영권 내의 식량자원은 상당한 잉여를 발생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전상 해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곧바로 국내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지난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동아전쟁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전이고, 따라서 결전 반도가 짊어진 식량증산의 사명은 반도가 황국 일본의 식량기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1942년도의 가뭄과 수해는 단지 쌀농사뿐만 아니라 잡곡을 비롯한 기타 밭농사에 큰 피해를 주었고, 그 수확량 감소는 1939년도의 가뭄피해 때보다 심대하여서 상당한 식량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 파급되는 영향은 크고 당국자는 밤낮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여 초근목피에 의한 재해지 주민들의 궁핍한 상황의 타개, 일반 민간의 양곡 공출과 소비 규정(規正), 일본 내지와 만주 등 각 방면의 동정적 협력에 기초한 식량의 조선 수출에 의해 반도의 식량사정은 점차 궁박한 상황을 벗어났다.

황국의 식량을 반석 위에 올리고 또 결전하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반도는 앞으로 식량증산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농업보국과 일본 내지와 만주에 대한 보은을 해야 한다.

1940년도에 수립된 증미계획은 자금과 자재 등을 절약한다는 견지에서 경작법의 개선에 의한 증산에 중점을 두어 토지개량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시국의 추이는 서서히 수리(水利)·관개시설의 정비를 요구하고 1942년도에 그 계획을 개정·확충하여 조선에서의 도작(稻作) 재배상의 최대 결함이던 수리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량사업을 확충·강화하게 되었다.

1939년도의 논의 총 면적 160만 정보(町步)를 1955년도까지 106만 1,700정보, 즉 현재의 47%에서 66% 정도까지 달성하기 위해 수리설비의 개선 정비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간·개척으로 15만 8,700정보의 논을 새로 조성할 방침을 농림 당국은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토지개량사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저리자금과 자재를 알선하고 농지개발영단과 수리조합연합회가 합작해 관개시설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경종법(耕種法) 개선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하고 품종 개량, 못자리 및 모심기 개선, 적기(適期) 작업이나 추경(秋耕)이나 심경(深耕)의 보급 철저, 개량농기구의 사용, 병충해의 방제, 합리적 시비(施肥) 실행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계획 달성 연차인 1955년도에는 증산 수량 1,138만 6,000석(石), 총 수확고 3,463만 6,000석을 올리려는 방대한 계획이고, 단보당(反當) 수량도 1석 9두(斗) 5승(升) 정도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또 1942년도 이후 5개년 계획에 기초한 전작(畑作) 단보당 수량의 증가에 의해 증산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도 조직의 정비·강화, 경종법의 개선, 논의 이작(裏作) 장려와 밭 휴한지의 이용에 의한 작부(作付) 면적 25만 정보의 확장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계획 달성 연차의 총 수확고는 대맥(大麥)·나맥(裸麥)·소맥(小麥) 합쳐 1,866만 5,000석으로 약 518만 석의 증산이다. 감자는 1943년도에 2억 관(貫)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두와 옥수수의 증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식량증산 계획과 결부해서 자금 비료, 특히 퇴비의 증산·기술지도·공동력의 결집·농림 축산의 다각적 경영 등을 도모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황국 농민도(農民道) 정신의 □□이다.

농민은 폐하의 '백성(大御寶)'이고 3000년 동안 황토(皇土)를 맡아 땅에 친숙하고 땅□□농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정순(精醇)한 일본정신도 이 생활에서 바탕으로 두고 있고 또 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 일본정신은 곧 '군국(君國)에 신명을 바치는 마음'이다. 다이난코(大楠公)는 "일신을 위해 천황을 생각하는 것은 배신이고, 천황을 위해서는 일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참으로 다이난코는 일본정신, 곧 야마토 다마시(大和魂)의 화신이다. 이 정신은 저 9군신·폭탄 3용사와 통하는 동시에 오늘날 결전하의 농민들도 이런 정신을 갖고 식량증산·양곡 공출·소비 규정에 매진해야 한다. 이로써 황국 농민도는 진작되고 도의조선 건설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메이지천황의 어제(御製)에,

영원히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 내 세상을 지켜라, 이세(伊勢)의
오오카미(大神)시여

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민초들에 걱정하시는 어심은 황송하기 그지없다.

많은 반도 유력자들이 선진 내지의 농촌을 보고 온 감상은 대개 일치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논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 관념이 강하다는 점이다.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깨끗한 진충순국(盡忠殉國)의 정신, 한없이 황토를 사랑하는 마음에 농촌에서 아름답고 강하게 배양되고 따라서 정강(精強)한 장병들을 황군에 공급하고 또 국가에 유용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연총(淵叢)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는 경신숭조(敬神崇祖)의 마음이 강하다. 부락의 삼엄(森嚴)하고 무성한 숲속에는 반드시 수호신의 신사가 있어서 부락 존숭의 중심이 되어 있으며, 부락의 모임도 신전(神前)에서 행하고 농번기의 타아소도 신사의 배전(拜殿)이나 경내에서 신의 가호를 받으면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가정에는 반드시 신단과 불단이 있어서 신불을 모시고 조상을 제사지내고 있다. 조석으로는 불을 밝혀 결재(潔齋)한 뒤 가족 전원이 예배를 올린다. 작물은 먼저 신불에 바쳐서 풍양(豐穰)을 감사하고 매번 식사 때도 신불에 감사한 뒤 먹는다. 또 각 성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귀천도 빈부도 상관없이 끊이지 않고 삼엄하기 그지없는 신역(神域)의 자갈 위에 엎드려 신전에 이마를 조아리는 귀한 모습은 전 국민의 경신정신을 보여주는 신국 일본의 진정한 모습이다.

셋째로 일본 내지의 농민은 친절하고 화목하다. 농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지키고 똑같은 토지에서 똑같은 생산을 하고 똑같은 양식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른바 지연(地緣)에 의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통유성(通有性)으로서 인보화목(隣保和睦)의 미풍이 자라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어려움을 서로 돕는 정이 매우 깊고, 특히 내지 농촌의 인정미 많음에는 각별한 것이 있다.

넷째로 생활에 여유가 있고 윤품이 있다. 일본 내지의 산야는 푸르고 무성하게 자란 삼림과 꽃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고 있고, 내지의 농가에는 집 주변에 비파·자두·복숭아·감 밀감 등 갖가지 과수를 심어 두어 사계절의 과일을 자급하면서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가을이 되어 빨간 감이 석양에 비칠 때, 밀감 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황금알이 열릴 때, 그것은 농촌에 형언할 수 없는 풍정을 더하고 농가에 풍요로운 윤품을 더하고 있다. 또한 어느 농가에서도 정원 앞에 사계절 다양한 꽃을 피우는 갖가지 꽃을 심고 거실에는 꽃꽂이를 두고 분재를 만드는 등 아름다운 자연을 가정 내까지 들여 놓았다. 내지의 농촌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저녁에 돌아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목욕을 하고 유카타(浴衣)로 갈아입은 뒤 노인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저녁 밥상을 둘러싸고 앉아 밥을 먹은 뒤 즐거운 담화나 라디오나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의 노고를 풀고 단란한 일가를 꾸림으로써 내일의 근로에 정진하기 위한 기력을 기른다는 화목이 있고, 윤품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근로정신의 왕성이라는 점이다. 일본 내지 농촌은 아침부터 밤까지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거의 쉬지 않고 근로하고 있으며, 청장년은 물론이고 노인·어린이·부녀자까지 거의 전 가족이 모두 근로를 하고 있고 마을에는 한 사람의 무위도식자도 없다. 자산가이든 노인이든 그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부인의 근로이다. 여학생도 방과 후 논밭에 나서서 열심히 일한다. 부인은 아침에는 가족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 저녁에는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본 내지와 조선의 통례이지만, 특히 내지의 여성들은 출정한 남자를 대신해 귀찮은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식량증산의 중심세력으로서 일하고 있다. 양잠은 물론이고 보리 베기·운

반·모심기 등 남자에게 전혀 뒤지지 않고 우마경(牛馬耕)까지 하는 활기찬 모습으로 일한다.

여섯 번째는 인보상조의 마음이 가하다. 인보상조의 마음이 깊은 것은 모든 농촌이 자랑할 만한 미풍양속이다. 농촌은 공존공영의 마음이 자라고 있으며 도시에서 이웃이 서로 모른 척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본 내지의 농촌은 특히 일촌일화(一村一和)이고 인보상조의 마음이 강하고 공동심이 철저하다.

일곱 번째는 농사가 진보하고 있다. 일본 내지의 농촌은 정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매우 진보하고 있다. 특히 집약영농법에서, 또 단보당 생산량이 많다는 점에서 언제나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경지나 작물이나 노력 등의 점에서 내지와 유사하면서도 늘 생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반도 농민은 이런 점을 잘 알고답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토지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주 작은 땅이라도 놀리지 않고 이를 생산화 하는 것은 전식 식량증산을 위해 농민에게 부여된 중대한 사명의 하나이다. 일본 내지의 농촌에는 공한지가 전혀 없고, 같은 토지라도 어떻게 높은 능률로 이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홉 번째는 생활이 낮고 저축이 높다는 점이다. 원래 농업은 꾸준히 곡괭이질을 하는 공을 쌓고 신고(辛苦)를 거듭하면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지극히 수수하고 지극히 내장적(內藏的)인 것이다. 따라서 그 생활 또한 수수하고 건실하게 영위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천지를 상대로 한 작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천재지변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일본 내지 농촌은 소박하고 근면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부유해졌다고 해서 농경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고 잉여는 축적해둔다.

열 번째로 농기구를 통해 볼 경우 내지의 농촌에서는 작업에 따라 이에 적합한 개량 농기구를 준비한다. 따라서 작업의 능률도 좋아진다. 또 내지의 농민은 농기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어서 그날의 근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맑은 물로 자신의 손발을 씻기 전에 그날 사용한 곡괭이나 가래 등의 농기구를 깨끗하게 씻고 농기구 창고에 정돈되어 있는 농기구는 흙이 조금도 묻어 있지 않고 광이 난다. 완전히 군인들의 총 손질, 해군들의 군함 청소와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이다.

이처럼 농민은 오로지 천황이 다스리시는 이 황토를 맡아 아주 작은 땅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국가 목적을 위해 경작하고 그 모든 것을 바치려는 황국 농민도에 살고 있으며, 이 황국 농민의 건설, 입체적이고 다각적 영농의 창조는 그야말로 세계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결전하의 식량기지 반도의 농민은 이 경건한 태도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우고 식량생산을 통해 필승의 생산전에 돌격을 감행하고 반도에는 황국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메이지천황의 어제에,

나라는 생각하는 길에 두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에 나서건 나서지 않건 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지 대지에 내려치는 곡괭이질 한 번 한 번은 황도반도 건설을 통한 홍아유신의 천업익찬(天業翼贊)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 황도문화 건설의 목적

반도에서의 황도문화의 건설은 근래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병합 이래 역대 총독들이 진력해마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문화신체제운동은 황기(皇紀) 2600년(1940년-역자)을 하나의 전기로 맞이해 팽배하게 일어났고, 아울러 대동아전쟁 후 고이소 총독의 시정에 의해 대륙전진 문화기지인 반도에서의 황도문화 건설운동은 드디어 정화작용을 수반하게 되었음은 반도 문화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이고 반도 문화인의 자각과 쫓기도 눈부시다.

황도문화는 넓이에 있어서도 깊이에 있어서도 그 침윤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적 정혼의 정화와 국민생활의 순치·강건에 노력하고 있는 반도 문화전사는 세계 신체제 수립에서의 전진 문화기지를 확실히 다지고 그 역사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보무당당하게 신성한 대진군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 눈앞에 나타난 황도문화 건설의 목적을 보고 참으로 그 신성한 분투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첫째는 일본적 실천 수련을 중심으로 한 고이소 총독 이하 각 국장, 각 도지사를 비롯한 조선 전체의 관공서 관리의 수련·연성회의 속개이고, 황도수련원(皇道修鍊院), 교학연수소(敎學研修所),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 기타 각지의 황민도장, 농민도장, 대화숙(大和塾), 정학회(正學會), 수양단(修養團) 등에서 황민연성운동이다.

둘째는 불교·유교·기독교 등의 대동단결과 그 일본적 발전 촉진을 위한 운동이다. 특히 기독교도의 신사참배의 증가, 교도들의 국어사용 열기의 급증과 일요근로운동 등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는 영화·연극·연예·음악 등에서의 외래 속물성의 일소를 내선일체, 전쟁완수, 국민교화, 산업전사의 위안·격려 등의 활동도 활발하고, 특히 각각의 경연에 의한 국민문화 건설을 위한 열의 있는 노력도 매우 의의 있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넷째는 조선 전체에 걸친 국어 완전 이해 운동, 국어 문예에 대한 총독상 제정 및 총력연맹의 문화상 제정 등은 국어 문화의 보급과 반도 문화의 향상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섯째는 조선 전체의 과학박물관, 상공장려관, 기계화 국방단체, 각종 과학단체의 과학 교육 보급에 의한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위한 분투이다.

여섯째는 언론기관의 통합과 언론의 통일이다. 특히 언론신문과 잡지의 국어란의 활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는 의무교육 실시의 준비와 국민학교와 기타 각종 학교 교육의 근본적 수정이다.

반도에서의 이러한 황도문화 건설운동의 급(急)전개는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화 각 방면의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한 국민의 영혼과 생활에 침윤하는 문화의 위대함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 전도요원하다. 이는 단지 문화 신체제운동의 출발점에서의 약간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국체 본의의 투철에 의한 도의조선의 건설에 2,400만 신민은 총력을 연마하고 결집해야 한다. 도의조선을 확립하는 일은 진정으로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일이고, 황국 본래의 모습을 반도에 현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황민 연성을 철저히 함으로써 황도문화의 고양을 도모하고 발달한 황민생활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문화 신체제운동의 주된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첫째로 황민 연성의 본 취지는 신을 신앙하고 살아 있는 신이신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심혼을 기르고 과감히 국사에 참여하는 강건한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며, 황도도장도 각 군별로 하나 정도는 설치되어야 한다. 아니, 기독교 교회 못지않게 각 부락, 각 마을 모임에 하나 이상의 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각 대학과 전문학교의 교수의 가두 진출, 사상인·문화인의 전면적 동원, 각종 단체의 지도층의 총동원에 의한 직역교화대(職域教化隊)의 편성·순회 등으로 반도황민, 특히 사봉대(仕奉隊)나 근로보국대를 전면적으로 계몽·격려·추진하면 국민사기의 고양은 눈부신 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물산과학관, 종합과학관을 주요 도시마다 설립해 결전 즉응의 과학 지식의 보급, 국방과학의 건설, 공작 기술의 향상, 기계의 운전·수리의 습득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넷째로 연극·연예·음악·영화 등의 □□□순회부대의 편성으로 농어촌의 사람들을 계몽하고, 국가적 지원에 기초한 ‘위안열차’의 설치 등으로 증산전(增産戰)에 노력하는 산업전시를 위안·격려하고 각종 오락단체의 조선 순회공연에서 의무적으로 상이병, 출정군인 유가족을 위문하는 제도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농어촌 등의 벽지에서 각 애국반마다 라디오를 공동으로 구입해 하루가 100년 같이 변전(變轉)하는 현 시국에 뒤처지지 않는 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예술 부분에서의 국어의 의한 표현 활동을 더 진지하게 하고 청소년·아동 교화를 위해 건전하고 명량한 아동문화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로 직장별로 후생문화를 일으켜 후생적 토속오락인 소싸움·씨름·그네·줄다리기·줄타기·널뛰기 등을 적절하게 지도·장려해서 사봉대(仕奉隊)의 자위적 후생 활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여덟째로 산간벽지까지 계몽하기 위해 야담·만담·나니와부시(難波節)³³⁾ 등의 순회, 종이연극, 환 등의 이용 등도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로 신문·잡지 등의 언론기관을 국책 및 국민운동의 선(線)에 따라 고도의 활용을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고, 결전하 별로 효과가 없는 약품 광고 등은 지면에서 없애야 한다.

열째로 생활문화 방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주의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다. 관혼상제의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住)’ 문화에서는 국가 기획에 기초한 국민주택이나 도시계획과 결부시켜 법제화하고 각 가정에 다다미방과 온돌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하고 창문을 많이 달아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고, 생활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욕실을 설치해 보건위생에 힘을 쏟고, 정원에 초목을 심어 생화·분재에도 취미를 갖도록 노력해 정조의 함양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음식(食)’ 방면에서는 국민영양식·대용식·구황식 등의 보급, 된장·간장·숙성 음식 등의 개선, 가족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는 단란함, 차를 장려함으로써 정조를 함양시키고 접객용 술을 없애고, ‘의복(衣)’ 방면에서는 국민복, 몸빼 애용, 불필요한 의류의 재활용, 채색한 옷, 작업복 등의 장려, 나아가서는 여름에 카키색 반바지나 셔츠를 제복으로 제정함으로써 섬유자원의 절약과 보건 향상에 뜻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생활의 합리화와 간소화에 노력

33) 이야기의 일종으로 ‘浪花節’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샤미센(三味線)의 반주로 군담(軍談)이나 강석(講釈), 이야기 등 주로 의리와 인정미를 다룬 것이 많음.

하는 동시에 점차 일본 내지·조선의 생활의 획일화, 내지인과 조선인의 결혼 장려, 국어생활의 철저 등에 힘을 쏟아 황민생활의 건설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체의 문화 건설운동에서 내지와 조선의 문화인은 합체·협력함으로써 반도문화를 완전히 황도문화의 수준에까지 고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반도 문화인의 창조적 노력의 결정(結晶)은 일본문화 성장의 영양소가 되는 동시에 황도문화의 세계적 선양에서의 우두머리가 되고 힘의 일환(一環)이 되어 안으로는 황도반도의 건설이 구현되고 밖으로는 세계 신문화체제의 영도가 되어 현현된다.

20. 대동아문화전과 반도

대동아전쟁에서의 황국의 결정적 대승은 세계의 자유주의 문화단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세계의 도의문화체제의 수립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야말로 이번 대동아전쟁은 인류 문화상의 새로운 창조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적 규모에서 공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 문화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랫동안 미·영의 문화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동아시아에서의 그들의 문화 침투는 뿌리가 깊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중요한 한 분야를 차지하는 문화전(文化戰)에서는 당연히 대동아에서 미·영 문화를 구축하고 일소해서 일본문화를 중심으로 한 대동아 도의문화 건설에 중점이 놓여야 한다. 황기 2603년(1943년—역자)부터는 전쟁이 한편으로는 급속한 건설을 수반하게 되므로 전시문화 방책이라는 것도 그 운용과 실천에 있어서 다소 발전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황국 일본의 거대한 일부이고 대동아 문화 건설에서의 전진 문화기지인 반도의 문화전사는, 문화는 중요한 군수품이자 탄환인 동시에 문화는 중요한 선무용 재료라는 의식 아래 문화를 전쟁 목적에 합치시키는 동시에 전쟁의 최후의 승리와 승리를 영구히 확보하는 일은 문화전의 승리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릇 문화는 생활과 사상의 표현이자 그 반대이기도 하다는 관계상, 국내적으로는 질서와 단결을 유지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적국의 문화와 그 우수성을 통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미·영 문화에 너무 도취한 나머지 일본문화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미·영 문화의 찌꺼기에 사로잡힌 경향이 반도에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 미몽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일본문화는 동양의 도의적 정신문명과 서양의 과학적 물질문명이 일본열도에서 서로 교차하고 3000년 동안의 간나가라(倭神)³⁴⁾의 정신에 기초하여 위장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혈액이 되고 골육이 되는 정수만이 물심양면의 일신 문화대계로서 종합적으로 완성된 것이고, 오늘날 구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물질문명이나 중국 혹은 인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축·퇴영적인 정신문명과는 자연히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두 발로 정연하게 서 있는 일본문화야말로 일인일각적(一人一角的)인 이러한 두 종류의 문화의 파행성을 시정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 문화이다. 따라서 이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문화전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부분적으로는 미·영 문화에도 뛰어

34) 사전적 의미는 '신의 뜻하신 대로', '태고적 그대로'임.

난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대 일본문화의 우월성은 오늘날 세계 문화사의 새로운 전환에서의 중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 일본문화의 모태를 확고하게 발판으로 내딛고 여전히 국내에서 일소되지 않은 미·영 문화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일본문화의 발양을 통해 대동아의 문화의 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뿌리 깊게 침투한 미·영 등의 문화에서 대동아의 민중을 완전히 해방·방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신문화체제 수립에서의 영도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총진군해야 한다.

일본적 문화는 일본적 사상의 소산이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다. 전체주의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되어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되어 나타났지만, 황국 일본에서는 황도주의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치즘은 히틀러도 확인하는 것처럼 일본의 황실 중심 사상을 받아들여 독일의 국정(國情)에 기초하여 만든 사상이고, 파시즘은 일본의 적수사(赤穂義士)나 백호대(白虎隊)의 정신을 받아들인 사상으로, 둘 다 20여 년의 역사밖에 없다. 그러나 황도주의는 유구한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상이다. 한때 자유주의(혹은 공산주의)의 세계적 풍미에 물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완전히 초극했을 뿐만 아니라 더 한층 발전했다. 황도주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의 전체주의의 시조인 동시에 그 사상적 내용은 세계의 전체주의 진영의 중심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진보한 국가는 일본의 일체주의(一體主義) 사상으로써 사상적 전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사상전에서의 승리는 당연히 우리 차지다. 팔굉일우의 건국정신에 기초해 만방으로 하여금 각각의 직분을 갖도록 하고 억조(億兆)로 하여금 각자 안정된 삶은 누리도록 해야 한다. 대동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걸쳐 자유주의 및 공산주의의 청산을 촉진시켜 대동아공영권에 사상적 강인성을 부여하고 세계 신질서 건설에 사상적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무력전·경제전뿐만 아니라 사상전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견지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국민사기 및 적개심 고양운동은 앞서 언급한 의미에서 사상적 배경을 필요로 하고, 팽배하게 반도에 넘쳐흐르는 애국열은 단순한 미·영 배경에만 그치지 않고 진중보국의 경지에까지 이끌어 반도 2,400만 황민이 완전히 이 정신으로 통일될 때 고이소 총독의 3대 시정방침인 황민 연성의 철저도, 총력운동의 3대 지도방침인 사상통일도 완성되는 것이며, 황국신민화 운동도 완성의 영역에 도달하고, 따라서 사상전에서의 대외적 전력의 증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황도사상의 중외에 대한 선양이야말로 사상전사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의 한 측면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생활재(生活財) 획득을 위한 노력의 표현이고, 따라서 국민생활 그 자체이다. 전쟁이 국민의 생활력 증강을 위한 자원획득 과정이라고 한다면, 문화의 발전도 자연히 이 전쟁 목적과 합치하는 것이며, 전쟁의 진전과 더불어 거기에 적응한 생활은 자연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전시국민의 생활력 강화운동을 생활 문화면에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전쟁 과정에서 사회의 제반 조건들과 가족제도와 인간성의 3대 조건에 부합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황국 일본은 살찌면서 전쟁을 하고 전쟁하면서 살찌다. 이른바 ABCD진³⁵⁾에 의해 봉쇄된 자원이 개

35) ABCD진이란 당시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America), 영국(Britain), 중국(China), 네덜란드(Dutch)를 가리킨다. ABCD포위망, ABCD포위진, ABCD경제포위진 등으로 불리기도 함.

방되고 전쟁에서 미·영의 부(富)는 붕괴하는 데 반해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 재원의 심장을 쥐게 되었고 우리나라 및 대동아의 번영은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상대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국력과 전비에서 강대국이라 불린 나라이고, 그 대참패는 태평양과 대동아에서 연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두 손을 들고 항복하거나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전쟁은 당연히 소모전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에서는 이 세계의 보고인 대동아를 개발하고 생산전력의 결승적 증강을 도모하면서 군수·민수의 증산 및 국가적 축적을 해야 할 것이고, 결핍 물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희생과 고통을 나눈다는 숭고한 마음가짐으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생활력 강화운동은 적극적인 면에서는 군수·민수의 증산을 위한 제반 활동이 되어야 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물건으로 넉넉하게 생활하기' 위해 생활의 합리화·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고, 동포들이 함께 살고 함께 고생하는 생활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의 배급에 도의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설계 아래 생활의 전폭적인 축소를 단행하고 저축에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전생활의 확립에서는 전시생활 윤리화운동이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세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의 면목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도의심의 배양과 공동생활에서의 국민 각자의 자각적 행동까지는 포함시켜야 한다.

전시생활의 간소화·합리화·능률화를 도모하고 방공·방독·방화 등의 전시 관련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전시생활과학의 습득에 전 반도황민은 총동원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는 실험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거리로 진출해서 생활과학을 통해 국민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시생활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결전 총진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통제와 소비 규정과 규격통일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일본 내지와 조선의 유기적 생활공동체를 완성해서 전력의 증강에 노력해야 한다.

예술·오락 방면에서는 이를 완전히 전쟁에서의 무기로서 선무용품 역할을 하도록 하고 언론·문장은 칼 없는 무기라고 불린 진정한 의의를 대외적으로도 중형무진 활용하고, 이번 대전쟁에서의 황국 일본의 정의와 성전의 목적을 중외에 천명하여 전시 국민 계몽에 노력해야 한다.

종래에는 예술·오락도 언론·문장도 자유주의적으로 분방한 발전을 계속하면서 때로는 일부 통솔자의 영리적인 자기만족적인 의욕의 영향으로 적지 않게 불건전성을 남겼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단체 관계자들의 불타오르는 듯한 애국적 자각 아래 그 불건전한 점과 미·영적 요소를 완전히 내몰아 일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적 건설에 대한 피나는 분투는 칭찬할 만하다. 문예·연극·영화·음악·홍행·라디오·레코드, 심지어 신문과 잡지에 이르기까지 전시동원 아래 국책적인 선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일본적 작품, 국민적으로 건전한 작품이 많이 나와 국민의 애국적 정열을 완전히 그 작품에 묘사하고, 반도의 이러한 문화적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비로소 대동아 문화전에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생각건대 미·영 문화를 대동아에서 내모는 것은 종래보다 우수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도 문예인은 일본 문예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미·영 문화를 격퇴·진격해서 당당히 세계로 진군하기에 충분한 건설과 창조를 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세계사적 대창조전에서 반도 문화전사는 전쟁에서의 문화면의 전쟁 행위를 통해 미·영 문화를 완전히 대동아에서 내모는 동시에 대동아공영권 건설에서의 황도문화 건설의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강행군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세계 도의문화체제 수립에까지 역사적인 힘을 더해야 한다.

이리하여 “쇠는 달아올랐을 때 쳐야 한다”는 이치에 따라 안으로는 황도반도의 건설을 통해 황국신민화를 촉진하고 일억일심(一億一心)이 되어 인류문화사를 새로 쓰면서 이 문화면에서의 건설전을 통해 청양무궁한 황운을 부익(扶翼)해야 한다.

21. 문화와 사상의 관련성

문화는 사상의 표현이자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국민사상은 건전한 국민문화를 낳고, 반대로 건전한 국민문화는 건전한 국민사상을 기른다.

총력운동의 3대 실천대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의 통일’이다. 또 이는 사상국방협회의 전기구를 통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문화 부분이 떠맡은 임무는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 부분은 그 지도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서 학술 부문·교화 부문·예술 부문·출판 부문·생활문화 부문이라는 다섯 가지 전문부문에 나뉘는데, 이를 부문별로 보자면 학술 부문은 반도의 학자를 총동원해서 일반 학술 및 인문과학·자연과학의 진흥을 도모하고 과학사상의 보급을 기하는 것이다. 교화 부문은 교화인·종교인을 총동원해서 국민교화의 철저를 통해 반도 2,400만 국민의 황국신민적 신념의 확립에 노력한다. 또한 예술 부문은 문학·음악·무용·영화·연예·미술·공예 등을 통해 국민예술·오락의 정화 건설을 도모하고, 출판 부문은 신문과 잡지, 일반 도서를 통해 출판문화의 쇄신을 기하고, 생활문화 부문은 황민생활의 건설을 목표로 생활문화의 질실(質實)을 기해야 한다.

반도의 신문화운동의 전개는 바꾸어 말하면 전진문화기지 반도에 황도문화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를 사상적으로 보자면 반도 2,400만 황국신민의 영혼을 단련시켜 그 황국신민적 자각을 심화·철저히 하는 것이다. 즉 내선일체·전쟁 완승을 목표로 문화의 청신하고 건전한 종합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는 학술봉공의 정성을 다하고, 이를 통해 일본정신의 고양에 노력하는 동시에, 국방과학의 급속한 건설·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교화인·종교인은 국제 본의의 투철을 도모하고 반도 국민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확립시켜 국민의 도의·신뢰의 마음을 배양하고, 명랑하고 활달한 기풍을 진작해 이를 목표로 교화의 가두진출을 도모하고 국민교양의 철저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은 예술·오락의 정화·향상을 도모해 건전한 국민예술의 수립에 노력하고, 직역·직장에 의한 건전한 후생예술의 진흥을 도모해 총후(銃後) 산업전사의 위안·고무에 노력하고, 또 활달하고 명랑한 청소년 아동문화의 건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출판인은 국어의 보급에 따른 국문출판, 잡지의 국어화에 노력하고 언론·문필의 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여론에 힘쓰며 계몽서적과 아동을 위한 출판을 함으로써 국민교양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 관념을 동원해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국민생활의 합리화·간소화를 도모하고, 국어의 보급과 상용에 노력해서 생활의 국어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취미·오락을 생활에 들여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인보상조의 정신을 진작해서 국민을 공동생활의 미속(美俗)에 순치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문화의 질실강건(質實剛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에서의 황도문화 건설의 새로운 발족에 있어서 반도의 문화인은 한층 더 자각과 적극적 분기를 해야 하고, 종래 일부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제3자적 비판 태도는 황국신민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적 직역 예능을 통해 신도(臣道)를 실천해야 하고, 제일선의 장병들이 무기를 들고 총후의 산업전사들이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이 문화인은 문필 예능을 통해 직역봉공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국가 총력전에서의 문화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인류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의 최후적인 승리는 문화에서의 승리에 의해서만 확보된다.

이러한 때에 반도 2,400만 황국신민은 문화를 단지 문화인의 문화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 황민 전체의 문화로서 육성해야 한다. 황도문화는 절대 일부만을 윤택하게 하는 편협한 문화가 아니다. 일억 국민이 모두 충성의 문화를 향유해야 하고, 이는 중외에 널리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화적 전진기지 반도에서의 황도문화의 건설운동은 우리 건국정신과 황도의 현현·선양을 통한 내선일체의 구현화운동이고, 또 세계 신문화 체제 수립에서의 제1단계 문화 건설이다.

따라서 반도에서의 황도문화 건설운동은 그 책임이 매우 중차대하다. 이는 반도 2,400만 황민의 책임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신성한 신문화운동의 실천 여하는 그야말로 반도황민 전체가 그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의 황도문화를 육성하는 데 망설이지 말라!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문화적 추진력인 반도 문화인으로서 그 추진적 지위와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황도문화 건설을 위한 정신대(挺身隊)이자 지도자임을 자각하고 그 책무의 완수에 의해 반도 2,400만 황민으로 하여금 황송하게도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바칠 수 있는 혼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와 사상의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고 황도문화도 황도사상도 그 근본은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2. 대동아사상전과 사상국방

세계 인종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사상적으로도 세계사에 있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변혁기를 맞이해 구체제·구질서의 지양과 더불어 세계는 바야흐로 신체제·신질서의 건설로 역사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동에서는 황국 일본의 지도 아래 대동아공영권이 건설되고 서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광역권이 건설됨으로써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 신질서 건설이 착실하게 구현되고 있다.

이 세계 신질서 건설전선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세계적 청산을 불가결한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사상은 일본에서는 황도사상이고 독일에서는 나치즘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기타 수많은 국가들도 일본·독일 추축을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신질서 건설에서의 사상적 영도는 황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달리 찾을 수 없다. 세계 인류는 구미의 공리적인 자유주의나 파괴적인 공산주의로는 세계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동시에 유럽식 패도로는 세계의 항구적인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모든 인류가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에 만방으로 하여금 각자 그 직분을 얻게 하고 역조로 하여금 각자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황도사상을 근간으로 일·독 동맹조약도 체결된 것이며, 전 인류는 도의세계의 건설에 황국 일본의 영도를 받들고 있다.

일본정신과 황도사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맹방 독일의 위대함을 보라. 패전국인 프랑스가 부흥국시를 '가족·봉사·국가'라는 일본적 사상에 찾는 것을 보라. 세계에 산재하는 투란 인종의 황국 일본에 대한 동경을 보라. 심지어 저 소련도 일본의 무사도적 표현인 돌격을 빈번히 수련하고 있음을 보라. 대동아 10억의 민족들이 황국 일본의 지도를 전적으로 바라고 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완전히 내몰아 일소하고 대동아황도권(大東亞皇道圈)을 사상적으로 확립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상전과 사상 건설이 무력전이나 경제전보다 항상 선행되고 또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전쟁에서의 대승을 영구히 확보할 수 있다. 저 대몽고기 당시의 세계를 정복했지만 오늘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무력전에는 이겼지만 사상전에 졌기 때문이다. 사상전의 역할은 승리와 건설을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굳게 다지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사상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순간이라도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반도는 황국 일본의 북방권 전진병참기지로써 북방을 진호(鎮護)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사상국방상의 역할은 크다. 미·영 사상과 공산주의에 물든 반도는 대동아전쟁을 계기로 사상적 정화를 완성하고 국민방공·국민방첩의 철저를 도모해서 황도반도의 건설에 사소한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굳게 결속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반도에 만큼은 적국의 제5열이나 스파이의 발생·침입할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사상국방의 견고한 진지를 만들어 반도 2,400만 황민이 모두 사상국방전사로서 활약해야 한다.

사상국방의 적극적인 측면은 일본정신의 고양을 통해 황국신민화운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사상적 전향자가 반도의 관민에 앞서서 일본정신 강습이나 일본적 실천적 수련이나 성지순례나 신궁을 축조하는 봉사 작업 등을 통해 일본정신의 고양·체득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상방위의 소극적인 측면은 불령한 사상분자나 스파이를 국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며, 저 국경 방면의 자위단원이 순직하면서까지 비적(匪賊)이나 스파이와 싸울 수 있는 투지는 조선 사람 모두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북방 진호에 산화한 수많은 영령들에 대해 경조(敬弔)의 마음으로 그 명목을 빌고 또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호국의 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령들을 신으로 받들고 싶다.

우리는 각 애국반마다 국민적으로 방공·방첩에 노력하고 이는 방범·방공·방화·방역과 더불어 각 애국반원은 연대책임으로 오로지 명량한 반도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일본정신의 파악·체득에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5인조제와 같이 애국반별로 사상국방에 진력함으로써 황도반도의 건설을 통해 북쪽의 방어를 견고히 해야 한다.

23. 심각한 반성에서 출발

지금은 국민총력궐기와 신도(臣道) 실천으로 결전체제를 확립할 때이다. 이는 반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내선일체운동이고, 2,400만 황국신민 모두 폐하의 적자라는 자각에 기초하여 순국의 적성으로 생활면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반도는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국민적 대진군에 있어서 망설임은 절대 용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종종 반도의 지도층이라 불리는 지식층의 일부에 이중인격자가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먼저 첫째로 황국신민인 자는 이중인격을 사용하지 말라. 이중인격자는 위험한 국민적 모반자임을 알라. 표면적으로는 아침을 떨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비황국신민적인 심정을 품고 있는 자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압력으로 박멸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중인격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정신으로 영혼을 다시 단련하고 청명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로 함부로 허풍을 떠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내선일체 실천운동에 뛰어들라. 이치는 벌써 알고 있다. 훨씬 이전에 벌써 선배들에 의해 다 논의된 것을 입만 놀리는 선(禪)처럼 지껄이면서 여전히 몸을 국민적인 내선일체 운동의 실천에 내던지지 않는 자들이 많다. 잠시 입을 다물라. 정말 이념을 알고 있다면 딱하니 자리를 잡고 결심을 하여 무게 있는 실천자가 되기를 바란다. 황국신민의 신념을 확립했다면 그것을 먼저 자신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음으로 자신의 가정에 옮긴 뒤 이웃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참새처럼 지저귀는 짓을 그만두고 황국신민적 생활의 건설에 노력하라.

셋째로 비판적인 제3자적 입장을 버리고 스스로 내선일체의 실천자가 되라. 소송적으로 열렬한 내선일체 실천자를 비방하는 짓을 그만두고 스스로 내선일체의 실천자가 되라. 사적인 정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대한 호불호를 판단하지 말고 폐하의 적자로서 신애하고 협력하라. 대화(大和)·대애(大愛)야말로 황도의 근본정신이다. 일역일심·일체가 되어 황국의 천부적 대사명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넷째로 내선일체를 말하면서 그 실천에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황도신민적 실천을 게을리 하면서 내선평등(內鮮平等)이라든가 정치 문제만을 운운하는 본말이 전도된 내선일체론은 불가하다. 황국신민적 도야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그 껍데기만을 논하면서 함부로 파문을 일으키는 시국편승적인 경향도 안 된다. 한 포기의 벼를 육성시키는 데도 방법과 순서가 있다. 만사 유감없는 손질을 하고 순서에 따라 성숙시키지 않고 단번에 늘리려고 하면 묘가 끊어지거나 종종 무리가 발생한다. 먼저 반도 2,400만 황국신민이 모두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전사하는 경지에까지 이끌어야 한다.

중요한 현안들은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정치 문제만을 운운하며 함부로 역사적 ……(판독불가)…… 내선일체 운동을 저해하는 추진방법과 실천이 없도록 내선일체 실천자도 항상 반성하고 자숙하고 자계하며 정진해야 한다.

황송하게도 폐하의 성령을 봉대하여 순충보국하고 국민 상호 간에는 부자지간의 마음으로 결합하고 도의·신뢰의 정으로 일역일심의 결실을 거두어 직역을 통해 신도를 실천해야 한다.

24. 승조필근(承詔必謹)의 정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진심으로 “한 목숨을 천황폐하를 위해 바친다” 내지는 “내선일체의 열쇠는 이론보다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보면서 나는 영혼이 서로 교류하는

벗이 있음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에는 여전히 이상한 이념을 품고 있는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여 같은 내선일체론이라 해도 조금이라도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것들 중에서 천황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하려는 불근신(不勤愼)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간나가라(惟神)의 태도와 국체 본의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구미적 문명의 여독 환자인데, 이는 가련한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리들은 먼저 국체의 존엄을 알고 국체의 근본의를 체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황송하게도 천황폐하를 말로 표현할 경우에는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불근신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천황론'을 설파하는 자를 종종 볼 수 있다. 황송하게도 천황폐하를 만드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불타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함부로 과학을 운운하지 말고 충성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또 항상 승조필근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과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을 사용하는 곳과 신민으로서의 태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따름이다.

두 번째로는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내선일체의 소론은 대대적으로 논해도 좋다. 하지만 진언하고 싶은 점은 내선일체의 이념이나 실천 과정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으로, 함부로 자신의 공허함에서 국책에 반하는 언사를 늘어놓는 것을 삼가고 '보다 나은 방법'을 모든 각도에서 연구해야 한다. 무게가 있고 알찬 인물을 많이 양성하는 일은 작금의 급선무로, 위대한 세계사적 창조를 짊어진 황국신민은 실천적 수련에 의해 고초를 이겨내는 뱃심을 길러야 한다. 각 부락마다 창고 같은 황민도장이라도 좋으니 부락민은 협력해서 이를 많이 만들고 각 애국반장이나 부인이나 추진대원을 수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총력운동의 3대 실천목표인 '사상의 통일'도 '국민 총훈련'도 '생산 확충'도 실천적 수련에 의한 국민의 저력을 키움으로써 절반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신을 경외하고 황실을 신앙적으로 존송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진중순국의 정신을 무한히 드러내는 위대한 저력을 함양할 수는 없다. 3대 신칙(神勅)과 가시하라텐토의 조(樫原奠都の詔)³⁶⁾와 한국병합의 조칙과 교육칙어를 삼가 봉대하고 오로지 국체 본의를 투철히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즉 승조필근의 정신으로 우리는 신도 실천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5. 일본정신의 심원은 다카아마하라(高天原)³⁷⁾ 정신

개인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는 국민정신이 있다. 개성에 있어서 인격 완성이 요청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있어서도 국민정신의 고양이 구현되어야 한다.

각 국의 국민정신과 대비할 경우 우리는 우리 국민정신인 일본정신의 비할 바 없는 진가를 알 수 있으며, 이번 대동아전쟁에서의 9군신에 의해 드디어 세계에 우뚝 솟은 그 존귀함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이난코(大楠公)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전 일본인에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몰

36) 초대 천황이라 일컬어지는 진무천황(神武天皇)이 가시하라(樫原)라는 땅에 도읍을 만든다고 밝힌 조서.

37) 『고사기(古事記)』의 일본신화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비롯한 많은 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천상의 세계이다. 다카노아마하라·다카마노하라·다카마가하라 등으로 불리기도 함.

랐던 나라들은 대동아전쟁에서의 인류사상 공전의 큰 전과에 의해 비로소 일본을 알았다고 하고, 또 지금까지 일본을 알고 있던 나라들은 “끝내 일본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며 탄복하고 있을 정도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세계에서 국민정신이 뛰어난 나라들도 자신들 나라의 국민정신으로는 일본정신을 헤아릴 수 없다며 마침내 두 손을 든 것이다.

일본정신은 각 국의 국민정신과 같은 단시일에 성장된 것이 아니라 그 심원은 멀리 다카야마하라 정신·가시하라(檣原) 정신에서 발하고 있는 것이고, 유구한 3000년 동안 생성·발전한 것이며, 천대(千代)에 팔천대(八千代)에 걸쳐 천양(天壤)과 더불어 한없이 변창할 웅혼(雄渾)한 국민적 정혼이다.

서양인들은 오늘날 일본 국민의 혼인 일본정신의 세계적 특징을 지적하며 말하길, 애국심이 강하고 충의의 마음에 불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 강하고 경신승조의 관념이 뜨거우며 대가족주의로 황실중심사상을 신앙적으로 강하게 체현하고 대의명분을 중히 여기고 비웃음 당하는 것을 신경 쓰고 심미성이 뛰어나고 신기함을 추구하고 전통을 지키고 청결을 좋아하고 예의작법을 중히 여기고 용맹하고 친절한 품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분명 이는 우리 국민성의 특징의 일부이고 일본정신의 정수 가운데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정신은 결코 이러한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를 이론적인 체계로 만들려는 것도 쓸데없는 것이다. 일본정신은 결코 논리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유구한 역사적 과정에서의 ‘태양을 근본으로 삼은 민족’의 생활 속에 있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총체적 표현이라 할 수도 있다. 일본정신은 간나가라적(惟神的) 생활을 영위하고 실천궁행함으로써 비로소 체득할 수 있다.

반도의 형제들이여, 일본정신으로 정신적 재무장을 하고 일본정신의 세계적 선양에 일본 내지의 형제들의 좋은 반력자가 되라. 이것이 일억일심·일체가 되는 길이며, 세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의 소질을 유지하는 까닭이다. 고차원적 다카야마하라 정신을 생성시키고 전 세계를 수리고성(修理固城)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다카야마하라 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3대 신칙을 삼가 받아들여야 한다.

보조무궁(寶祚無窮)의 신칙³⁸⁾

재경재수(齋鏡齋穗)의 신칙³⁹⁾

신이반경(神籬磐境)의 신칙⁴⁰⁾

(역자 주 : 원문에는 각 신칙의 내용이 약 2줄 내외로 소개되어 있으나 그 내용 소개를 포함, 각주로 대신함)

38) “갈대가 무성한 들판에서 가을이 되면 벼이삭이 많이 열리는 땅”, 즉 일본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인 천황이 대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즉 ‘황통의 유지와 제사의 계속’으로 일본이 영구히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39) “이 거울을 볼 때는 나를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것은 곧 천황은 항상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함께 생활하고 신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벼이삭을 주어 일본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40) 국민은 황통의 번영을 기원하고 천황을 떠나서는 국민이 없고 국민을 떠나서는 천황의 천업은 수행할 수 없다는, 즉 천황과 국민은 떨어질 수 없는 일체(一體)의 국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6. 성지순례와 실천적 수련

우리 일행은 뜻 깊은 황기 2600년의 기념적인 해에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팔굉일우의 구현에 매진하는 신병(神兵)·성민(聖民)의 본연으로 되돌아가 빛나는 세계사적 창조의 한 분야에 봉공의 적성을 다짐하면서 궁성요배를 비롯해 일본 내지의 주요 신궁과 신사를 참배하고 황국 일본의 대표적 각 도시의 문물 일체를 시찰했다. 아울러 1억 국민의 저변에 흐르는 일본정신의 체득을 목표로 매일 밤낮으로 실천적 수련을 하면서 강행군했다.

10년 만에 도쿄(東京)를 비롯한 각지의 옛 벗들을 만나 기뻐하고 각지의 관민과 각 방면에서 일행에 대한 친절환대, 하나같이 나로 하여금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일체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나에게서는 항상 환희와 동경 이상의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참궁(參宮) 수행을 떠날 때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아가 히틀러 수염까지 깎고 순수한 자신의 동심 위에 세계인류가 바라마지 않는 일본정신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 나 자신의 청명심의 구현에서 출발했다. 출발 당일까지의 병도 기적적으로 나았고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일본이 맑았다는 것은 천우신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청명을 더했다.

다행히 나는 지극한 성은에 황송하고 감격하며 진정성과 사랑이 넘치는 야마토(大和)의 일본정신을 맞보고 체득할 수 있었다. 과거 내지 생활에서 이런 방명에 태만했던 나는 성지순례 여행을 통해 한없는 감회를 느꼈고 정신적 혁명을 자기 안에서 구현했다. 내선일체의 실천 방법도 이 황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야마토의 일본정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일본 내지의 동포가 세계사적 창조에 당면해서 거국일치·멸사봉공의 결실을 거두고 있음은 니주바시(二重橋)⁴¹⁾ 앞에 궁성을 요배할 때와 전국의 주요 신궁과 신사를 참배할 때 알 수 있었다. 즉 매일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의 요배자 혹은 참배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역일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미련 없이 죽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출정 장병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출정 장병들의 무훈장구를 기원하고 전몰 영령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천양무궁한 황운의 부익을 염두에 기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1억 국민의 영혼이 애국적·통일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궁성 앞과 신궁·신사의 신역(神域)에 무릎을 꿇을 때이다. 이 존귀한 모습을 차창 너머로 지나가면서 바라보며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일본을 아는 방법이 아니다. 진정 약진하는 일본의 모습이 알고 싶다면 궁성요배 및 신궁과 신사참배에 직접 참가해서 체험을 쌓아야 한다.

우리 일행은 먼저 고베(神戸)의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에서 다이난코(大楠公)의 영전에 무릎을 꿇었다. 우연히 다이난코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고 야스쿠니신사의 임시 대제일인 5월 25일이었기에 특별히 뜻 깊었다. 다이난코의 유혼은 실로 순진하고 지고한 정신은 천지에 울려퍼지는 느낌이 있다. 다이난코의 묘 앞에 서고 차 안에서 야스쿠니신사의 요배와 묵념을 올리고, 아울러 요시노(吉野)에서 쇼난코(小楠公)⁴²⁾의 유적을 배관(拜觀)했을 때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는 호국영령의 진충순국의 혼은 다이난코의 칠생보국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며, 오늘날 전 국민의 기백은 이 다이난코의 칠생보국이 보

41) 황거(皇居) 정문에 놓여 있는 철제 다리.

42)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아들인 구스노키 마사쓰라(楠木正行)의 별칭임.

편화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었다. 이번 성전이 공전절후(空前絶後)의 큰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바로 다이난코의 정신이 국민적으로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황기 2600년의 기념적인 해에 황국의 발상지인 가시하라의 성지에 전국의 대표 250명과 함께 3일간 수양을 하고 모두 힘을 합쳐 나무를 심는 봉사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광영이다. 일동이 신전에 엮드렸을 때의 세 번의 닭 울음소리는 팔굉일우의 여명을 알리는 신의 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신대(神代)에 오늘밤과 같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비로소 일본이 명랑하게 맑아졌다고 한다면 황기 2600년에 전국의 봉사자 대표의 적성이 나타나 닭의 신의 계시를 들은 것은 혼돈스러운 세계를 구제하고 팔굉일우의 건국정신을 구현하라는 여명의 신의 계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 황국의 세계적인 대사명의 완수가 보장된다고 다짐했다.

메이지천황의 영령이 잠들고 있는 성역 교토(京都) 모모야마능(桃山御陵) 앞에 엮드려 절하고 황국 신민의 서사를 봉창할 때와 군신(軍神) 노기(乃木) 신사에 참배했을 때 나는 반도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고 황국의 융창을 생각하고 아시아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감사·감격의 마음에 벽찰 뿐이었다. 특히 노기 신사에서는 그 ‘결백하고 불타는 듯한 순국의 정신’에 감동하고 한동안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이세신궁 참배에서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숭엄함에 감동했다. 고타이신궁(皇大神宮)은 우리 황실의 시조이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시고 있는 지고·지존한 성역으로 누구라도 경건한 태도로 무념·무상·무구한 마음으로 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세신궁과 가와하라신궁이야말로 빛나는 우리 국체의 기초를 정한 역사적 성지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오는 참배자는 매년 수백만 명이나 되고 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광대무변한 신덕(神德)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이 천고에 변하지 않는 경신승조의 미풍은 건국의 대정신에 합치한 국민도덕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 누구도 아무런 권유를 받지 않았지만 일행은 아픈 사람까지 자발적으로 오전 5시에 신역(神域)에서 냉수욕을 해서 미소기(禊)를 마치고 심신을 깨끗이 한 뒤 신체(神體)이신 거울 앞에 엮드렸다. 이 속인이 황송하게도 거울에 비칠 때 여기에 신과 함께 살아가는 신인일체(神人一體)의 관념이 솟구쳐 올라와 미소기의 의의도 명확해졌다. 그야말로 ‘대동아의 건설도 미소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나고야(名古屋)의 아쓰타신궁(熱田神宮)까지 참배했을 때 나는 삼종의 신기(神器)에 의해 드러나 있는 ‘인애’, ‘정의’, ‘청명’을 기조로 한 신덕과 황도정신의 깊은 곳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이 니주바시 앞에 엮드렸을 때는 가랑비가 내렸다. 이 성역에서는 누구 하나 우산을 펼치려고 하지 않는다. 기꺼이 하늘의 미소기(禊)를 받았다. 메이지신궁(明治神宮)에 참배했을 때도 궁성 앞에 엮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봉창하고 일사순국(一死殉國)의 결의를 새로이 다짐했다. 일행 중에는 사상적 전력자도 있었지만,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고, 오늘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다짐한다. 이 사실이야말로 황도 일본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의 위대함과 강인함은 여기에 있다. 황도는 죽은 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 빛을 발했다. 전 인류의 포용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때 나는 가슴에 솟구치는 감회를 어찌할 수 없었다. 수많은 호국 영령들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안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많은 영령들이 흥아(興亞)·호국의 반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가로이 그 열매만 따먹는 것은 절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도 아이들을 야스쿠니에 보내고 나 자신도 일사순국의 결의를 봉공한다. 경외하는 호국의 영령들이여! 명복을 비노라"라고 다짐했다.

내선일체는 3000년간 일본 내지와 조선의 관계에 따라 그 태고 적부터 실현되고 있다는 흔적을 보고 이를 각자가 자신 안에서 체현함으로써 구현된다.

가시하라신궁(橿原神宮)·고려신사(高麗神社)·센소지(淺草寺)·소지지(總持寺) 등의 좌담회에서의 총 결론은 내선동조(內鮮同祖)라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는 정설이다. 내지와 조선의 동포들 사이에 감정상의 장벽을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사실에 맹목이고 현실에 대해 우매한 자이다. 내선일체론을 중국인의 동아협동체론(東亞協同體論)이라든가 만주인의 민족협화론(民族協和論)과 같이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존재이다. 동문동조(同文同祖)이자 같은 운명 아래 동일한 현실 생활을 하는 내지와 조선의 동포들이 완전히 결합해 동일한 지위 속에서 일체가 되어 대동아 공영권에 중추체로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이론이 있을 리 없다. 다만 대동아 건설에서 가장 긴요한 일은 내선일체의 촉진이고 이는 먼저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에서 찾아야 한다.

무사시노(武藏野)의 개척, 교토·나라(奈良) 등에서의 사원 고적에 나타난 내지와 조선의 문화교류의 흔적, 센소지·고마신사의 유래 등,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내선일체의 역사적 사실은 도리어 현대에서의 우리를 각성시키는 바가 많다. 특히 고마신사에 참배하고 근로봉사를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에 감개무량했다. 고구려 약광왕(若光王)의 57대째의 후예인 신주(神主)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때 1,900명의 이주민을 데리고 무사시노에 들어온 약광왕은 시라히게묘진(白鬚明神)으로서 전국 57곳에 모셔져 있다"라고 하고, 당시 반도에서 이주·귀화한 사람들 숫자는 상당했을 것이다. 오늘날 고마신사의 내지와 조선의 동포들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다.

성지순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시국이 내지의 국민층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가는 두세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국민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이였다. 대전쟁 중에도 차분히 안정된 모습에 일본의 위대함이 있고 그 어떤 새로운 적이 나타나도 일격에 분쇄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무진장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 국민으로서의 든든함이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평온한 생활태도라 하더라도 황국이 당면한 세계사 창조의 대사명의 달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역 완수를 목표로 국력의 입체적 충실을 위해 만사 유감없는 철혈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둘째로, 검소한 내지 부녀자들의 근면·노력하는 생활태도이다. 부녀자들은 양춘가절(陽春佳節)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우미(優美)한 거동만 우미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활짝 핀 꽃과 조화를 이루는 과거의 아름다운 옷은 전국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화장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여학생은 조리를 신고 군사교련을 한다. 주부도 여학생도 전담에서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일한다. 저 아름다운 부녀자들은 이리도 위대한 힘을 국가 총력전에 기울이고 있다. 그녀들은 이러한 강인한 생활을 통해 제일선 장병들을 안심시키고 자녀를 폐하의 적자로서 육성하고 사회의 폐풍을 교정하고 있다. 허영심이 가득하고 게다가 무뚝뚝한 일부 반도의 부녀자들은 크게 배워

야 한다.

셋째로, 각 산업 부분에서의 생산 종사자의 분발 모습이다. 과학과 일본정신의 결합으로 일본적 특색이 있는 대산업 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세계 지도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일본제관(日本製管)·일본도기(日本陶器)·마쓰다전구(マツダ電球)·메이지제과(明治製菓) 등 각종 세계적 대공장을 참관했는데, 이러한 공장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산업 영웅들의 근면한 모습은 적성 그 자체였다. 공장 안에 배가 들어가고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케이블카가 달릴 정도로 큰 공장 안의 수만 명의 노무자들은 한눈을 팔지 않고 산업보국의 일념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일본정신의 발로이다.

기타 물가는 싸다. 암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물자는 후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은 항상 사생활을 간소화하면서 국가의 통제에 협력한다. 그리고 농업은 극도로 집약화되어 동일 면적에서 조선의 3배의 수확을 올리고 있다. 이는 모두 일본정신의 표현이다.

일본정신은 논리가 아니다. 생활 전체에 일본정신은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신의 체득을 이론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수련에 의해 체득하고 생활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궁단 일행은 각지의 저명한 도장·수양단에서 실천적 수련을 했다. 가시하라 성지에서의 봉사 수양회는 식사·취침에서 봉사 작업이나 행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군대적 규율과 자치정신 아래 이루어지고, 교토에서의 다과회는 실로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로운 황국신민으로서 지켜야 할 작법이며, 전국시대에 무사들이 전쟁터를 내달리면서 차를 마시던 여유로운 감정도 알게 되었다. 가령 한 잔의 차를 마시더라도 거기에는 도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다.

교토의 잇토엔(一燈園)에서는 주인 니시다 덴코(西田天香)를 포함해서 전원 30세대의 가족들과 함께 하루 동안 기거, 침식을 함께 하면서 수행했다. 여기에서는 향락을 노동 속에서 찾고 서로 경의하면서 애선무원(愛善無怨)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일체를 가치판단으로 평가하지 않고 불이(不二)의 광명으로 평가하고 탁발(봉사)로 보은한다. 따라서 식기 2개를 생활 단위로 삼아 덴코도 일어나서 다다미 한 장, 누워서 다다미 한 장이라는 주의로 다다미 두 장에 기꺼이 기거하고 있다. 이 이상향에서는 전체가 가르침을 주는 조직이 되어 있고, 반도인이 이 부락의 교장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실생활 속에서 가르친다. 국민정신 정화와 최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팔목할 만하다.

이세(伊勢)의 재등료(齋庭寮, 황도 일요학교)에서는 신궁에 받드는 예비 수양이 있고, 소지지(總持寺)에서의 참선강습회에서는 존귀한 무언가를 획득했다. 가마쿠라시대 이래로 수많은 무사들은 좌선을 통해 수행했다는 사실은 나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무가정치가 이어지는 동안 소지지의 역할은 위대한 것이었으리라. 우리 일행은 여기에서 3일간 참선을 하고 또 수많은 계불자(禪祓者)의 강의를 들었다. 보행·식사는 물론이고 앉는 방법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좌선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경지는 면벽 9년의 달마대사만 맛본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3일간 오전 3시 반에 기상해서 아침·점심·저녁 3회의 좌선으로 그 방법만은 충분히 익혔다. 이 절에서는 밥을 양약(良藥)이라고 부르고 절미(節米)운동을 경미(敬米)운동이라고 부른다.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처럼 각지에서의 실천적 수양을 통해 우리는 일본적 생활양식과 일본정신의 진수를 다소나마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는가이다. 내선일체를 촉진하려고 한다면, 즉 황국신민의 소질을 갖추려고 한다면 묵묵히 일본적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일본적 재출발이자 팔굉일우의 진군이다.

혼이 깃든 인간이 되고 실천하는 인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황민의 면목을 유지할 수 있다. 영적 생활에 굶주린 반도인, 황민적 도야에 시간적 지연을 초래한 우리는 일본 내지 동포들의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 패배자는 장생할 수 없다. 무한한 생명·무한한 인격(덕)을 찾아 천양무궁한 황국의 진운(進運) 속에 몰입해 영구히 살아가야 한다.

봄의 화용(花蛹)을 관상하고 또 신락(神樂)을 배관했다. 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미는 국민생활의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곳곳에 신사가 있고 신과 더불어 산다. 곳곳에 꽃이 있고 꽃과 더불어 웃는다. 곳곳에 노도와 같이 파도치고 노도와 더불어 국난에 임한다. 이것이 일본적 생활이라고 나는 보았다. 일본의 자연미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게다가 이러한 자연미 그대로 정원·분재·생활 속에 드러나 있다. 곳곳에 잉어와 사슴과 □이 노닐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선생활이다. 세토나 이카이(瀬戸内海)·후타미가우라(二見浦)·아카시해안(明石海岸)·요시노산(吉野山) 등에서 본 것처럼 참으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일본정신에서의 청명심은 이 자연미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정결한 행동, 청결하고 깔끔한 생활, 윤택한 날씨 등은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미까지 황폐한 반도에서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치 사하라 사막의 미이라와 같이 차갑다. 윤기 있는 자연미 속에 생활하는 내지인의 넉넉한 친절미에는 실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자연을 흠시하는 국민이 번영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고대의 문화가 사막 속에 사라지고 거기에 지금 국가는 없다. 반도의 자연미는 온돌이 먹어치우고 있다.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예술은 고대부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각지에서의 사원·불각·명성·고적 등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예술도 전통을 존중하는 일본정신의 표현이다. 나라·교토에서의 국보적 유물, 특히 니시혼간지(西本願寺)에 있는 모모야마(桃山) 시대의 비운각(飛雲閣)은 우리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나는 농업에서도 일본미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신평미숙(神風美熟)이라는 농민도장 등에서 보았다. 신평미숙은 생도 25명 가운데 24명이 반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지도 방침은 작물과 사랑의 결합이고, 그곳의 규칙은 “우리 민족의 본연성에 기초하여 황국 및 농민의 도의를 경(經)으로 삼고 농장 경영의 진지한 노동생활을 위(緯)로 삼아 농촌 청년을 훈련·단련시키고 웅건·활달한 기백과 강건한 체구를 지닌 애국적 농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황국 농민도와 그 생활미는 이 속에 있다. 모든 일본적 생활은 영혼과 미의 결합이다. 따라서 세계인류가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참궁 수행을 통한 일본정신의 총괄적 결론과 일본적 성격의 특이성을 요약하자.

첫째로, 일본정신은 원심적인 동시에 구심적이다. 우주생성의 대원리이자 야마토의 원리이다. 멀리 다카야마하라 정신·가시하라 정신에서 우리는 팔굉일우의 대이상과 야마토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황도는 우주의 창생을 육성한다. 만물은 이 원리에서 나오고 또 이에 의해 자란다. 그리고 팔굉에 뻗어가는 일본정신은 항상 천황에게 귀일하고, 또 일체 관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인일체·군신일체·내신일체·노사일체·자타일체, 모든 것이 그러하고, 서양의 분석학적 해석은 오늘날의 동양문명을 자기청산으로 이끌었지만 황도 아래에서는 대웅아 신질서 건설·세계 신질서 건설이 있을 뿐이다. 팔굉일우는 이처럼 잇따른 신질서 건설과 일체 운동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 일본정신은 웅대하고 치밀하다. 저 고성(古城)·불각(佛閣)의 규모와 근대적 건설 등에서의 일본정신의 웅대성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대동아 건설에 추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의 재편성을 통한 팔굉위우(八紘爲宇)의 구현에까지 추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코 소(小)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일본 예술에 나타난 치밀성은 저 웅대한 건설을 만대에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정신은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하다. 일본적 우미성과 친절미는 실로 부드럽다. 게다가 국난을 당했을 경우의 불타는 애국심에는 어떠한 물건으로도 꺾 수 없다. 한 번 웃으면 어린아이가 달라 붙고 한 번 노하면 천지가 요동치는 성정을 지녔다는 점에 일본적 특성이 있다.

넷째로, 일본정신은 오래되었으면서 새롭다. 옛날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게다가 옛날 그대로이다. 태고적의 신칙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통한 팔굉일우의 구현이 되어 우리에게 진흥보국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운 역사적 내용은 일본적 형태로서 전통으로서 이어지는데, 이는 결코 그 발전적 특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대륙의 불교도 유교도 일본에 건너와서는 일본적으로 소화·발전했고, 서양의 문질문명도 일본에 와서는 말끔히 일본적으로 소화됨으로써 일본정신을 기초로 오늘날 물심양면의 일본 문화체계를 만든 것이다.

일본정신과 일본적 성격이 세계에 우뚝 솟아 있음은 대체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이는 결코 일본정신을 전부 다 말한 것은 아니다. 눈에 비친 특성만을 개괄적으로 거론했을 뿐이다.

일본의 약진은 항상 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이카개신(大化改新)·겐무중흥(建武中興)·메이지유신, 나아가 이번 흥아유신(興亞維新)에서 역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은 신에게 절하는 동시에 황실을 신앙적으로 존숭한다.

일본의 위대함은 일본정신에 흐르는 이 본류의 발동에 의한 것으로, 천대에 팔천대에 광휘를 우주에 비추는 까닭이다.

참궁 수행을 통한 일본적 재출발은 일억일심(一億一心) 대화일체(大化一體)로 천양무궁한 황운을 부익하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팔굉일우의 구현을 향한 진군이다.

27. 금강산 미소기(禊) 연성

황도반도의 건설과 황국의 전력 증강을 위해 매진하는 반도 총력진의 총 본영인 연맹 사무국을 쇠신·강화하기 위해 85명의 사무국 직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외금강 온정리의 연맹도장에서 5일간씩 2개 반으로 나누어 미소기(禊) 연성을 실시했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성회 일정표〉 (외금강산 도장)

일시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5		기상/청소	기상/청소	기상/청소	기상/청소
6		조배(朝拜) 미소기	조배 미소기	조배 미소기	조배 미소기
7					

8		배신(拜神)	배신 중일제(中日祭) 하안제	배신	배신
9		조식	조식	조식	종계제(終禊祭) 하안제
10		강의(2)	신사참배	강의(4)	폐회식
11	반성회				
12	집합/주의	배신		배신	해산
1	사항 설명	미소기		미소기	
2	개강식	배신	배신	배신	
3	시계제(始禊祭)				
4	하안제(河岸祭)				
5	석식	석식	석식	석식	
6	강의(1)	배신	강화(講話)(3)	강화(5)	
7					
8	석배(夕拜)	석배(夕拜)	석배	석배	
9	취침	취침	취침	취침	

하타(波田) 전 총장, 각 부장 이하 전원이 하루 8홉의 죽으로 견디면서 연성을 계속했다. 5월의 금강산의 청류(清流)는 아직 차가웠지만, 오전 6시에 60세 이상의 노인도, 약한 병든 사람도 모두 계곡 물에 뛰어들어갔다. 노 젓기 운동도 힘차게 “으랏차차” 소리를 지르며

조석으로 신의 능위(稜威)에 미소기 하는 몸은 영원히 무사히

라며 소리 높여 외쳤다. “어기여차, 어야디아”라며 있는 힘껏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르며 노 젓기 운동을 하고는 ‘하라에도노 오오미카미(祓戸大神)⁴³⁾를 생각하면서 수중으로 뛰어든다.

“다카아마하라에 신이 계시는……”이라는 대불사(大祓詞)와 함께 조칙이나 어제(御製)를 전부 봉창하고 신업(神業)에 들어가 “천황폐하 만세만세 만만무궁세”를 비롯한 기타 칭송의 말을 하고 마친다. 3일째에는 만물상으로의 행군, 마지막 날에는 구룡폭포로의 강행군으로 예부터 선인·도인들이 산다는 영봉 금강산의 영기를 받고 연성회는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었는데, 이러한 신의 생활에서 8홉의 죽 맛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 톨의 쌀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흥작지의 재해민들의 노고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강력한 연성회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의 푸짐한 음식, 그리고 자유행동으로 옮길 때의 기쁨은 실로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고행을 통해 비로소 심신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법이다.

특히 가슴속에 새기게 된 것은,

43) 신도(神道)에서 하라에(祓), 즉 죄를 씻는 행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첫째는 황조신(皇祖神)을 비롯해 수많은 신들, 현인신(現人神)이신 천황의 능위에 미소기를 함으로써 신에게 다가서고 천황의 방패가 되겠다는 자각을 더욱 강하게 가진 점이다.

둘째는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신의 분혼(分魂)이자 분신이며, 서로 주고받으며 은혜를 받고 있으며, 한 톨의 쌀·한 방울의 물도 현인신의 방패로 만드시는 양식으로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식한 점이다.

셋째는 심신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맑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가진 점이다.

넷째는 인고단련·금욕절제·결재정돈(潔齋整頓) 등의 실천적 수련에 효과가 컸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사무국 직원들의 친화단결을 더욱 굳게 다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금강산에서의 미소기 연성은 반도를 깊어지고 일어서는 연맹 사무국 직원들에게 더욱 활기를 불어넣은 것인데, 나는 반도 2,400만 황국신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한다.

1) 과거에는 지방의 각 부락에 청년회관·교회·작은 서당 같은 것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장래에도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면 각 부락에 이 정도 설비의 도장은 반드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락마다 도장을 건설해서 애국반장·청년단장·부인회원 등의 연성을 구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반도인의 도연(道彦)·조연(助彦) 등의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서 기독교 목사나 전도부인 숫자보다 많이 지방에 배치·부식해서 각 부락의 연성 지도를 맡도록 하는 것이 위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필수 조건이다.

3) 하급 지도자 혹은 일반 민중에 대한 연성은 고급 지도자에 대한 연성과 같이 너무 강력한 실천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간소한 연성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4) 강의에 군국정신을 고취하고 재래의 반도의 미소기와와의 결합을 도모하며 미소기 정신을 실생활에 받아들이는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보여주는 일에 유의해야 한다.

나는 4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고 이세의 고타이신궁에서 미소기를 한 이래 “참궁 수행을 통한 팔굉일우 현현을 향한 진군”이라는 제창을 고수하고 있는데, 팔굉일우의 건국이상을 현현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세계의 수리·고성을 이루기 위해, 또 그 선두로서의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해 총진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도 2,400만으로 하여금 신에게 다가서게 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순충보국하는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총 연성을 해야 한다.

28. 성지의 청소 봉사에 노력하라

반도 2,400만의 영적 정화의 성지로서 숭앙받고 있는 조선신궁은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참배자들이 모이고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참배한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계층의 관민이 이 성지에서 애국적으로 통일되고 황국신민으로서 정화된다.

이 신성한 조선신궁을 참배할 때 뒤쪽 길로 들어가 참배할 경우에는 매우 청량(淸朗)한 감정을 갖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앞쪽 길로 들어가 참배할 때는 정신의 청량함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신궁 외원(外苑)에서 신궁 입구의 돌계단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때, 청정해야 할 참배 앞쪽 길 곳곳에 소와 말의

똥이나 종잇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담배꽂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불손한 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짓이다.

종종 여학생들이 단체로 신궁 내원(內苑)을 청소 근로봉사를 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참배 앞쪽 길도 청소 봉사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궁 참배길의 청소 근로봉사를 부근의 애국반이 분담해서 하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신역을 더럽히는 불손한 자들은 더욱 자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신체제가 이리쿵저러쿵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담배를 피우면서 신궁 참배하는 불근신하기 짝이 없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은 신역의 녹화 근로봉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을 둘러보면 헐벗은 산에 신사·신사가 조영되어 있는 채로 신역에 수목이 별로 없는 곳을 볼 수 있다. 매년 식수 기념일에는 각지의 여러 단체들은 출선해서 신역에 나무를 심도록 유의하기를 바란다.

신궁·신사참배를 할 때는 무념무상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역에서의 싸움은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무념무상, 눈은 여섯 걸음 앞을 바라보고 조용히 참배해야 한다. 그때의 감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숭엄함이 있다.

조선신궁에는 황송하게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천황을 모시고 있다. 국민은 모름지기 이 성지를 청정하게 만들어 청정한 기분으로 참배하여 신력을 받들어야 한다. 각지의 씨신(氏神)도 마찬가지로이다. 각지의 신사·신사의 경내도 청소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경신승조의 관념 속에서 간나가라(惟神)의 대도·황도·일본정신은 체득되는 것이며, 대동아의 지도 이념도 도의조선 건설의 이념도 작게는 개인생활의 실천 이념도 정화되고 또 향상된다.

29. 북방권 전진병참기지 반도의 위용

조선반도는 대동아공영권 경제 건설의 북방권 전진병참기지로서의 중대 사명이 있다. 이 대륙 전진병참기지로서의 종래의 건설은 첫째로 이 사명의 수행이며, 장래에도 외지적 성격의 지양과 더불어 반도는 황국의 거대한 일부로서 또 대륙으로 가는 교두보로서 국가의 종합적 기획에 기초해 산업 경제의 건설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북방권과 황국 일본을 잇는 중요한 경제적 연대는 반도 이외에는 없다.

이러한 반도의 유망한 산업 입지적 조건은 반도의 풍부한 자원과 시정 30여 년에 걸친 산업의 경이적 발전과 더불어 제국의 일부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야말로 대동아공영권 내의 으뜸으로서 황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대 표본이다.

먼저 광공업 부문에서 이를 보면 갈(褐)철광·적(赤)철광·자(磁)철광 등의 광대한 광맥을 갖고 있고 그 저장량은 함북의 무산만 보더라도 십 수억 톤이다. 무산철광(茂山鐵鑛)은 빈광(貧鑛)이긴 하지만, 가행(稼行) 조건은 좋아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일본의 철은 당분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무산광산을 중심으로 1939년 말에는 미쓰비시광업(三菱鑛業)에 의해 제1기 공사 완료, 1940년에는 미쓰비시·니테쓰(日鐵)·니코우(日鑛)의 공동 출자로 무산광업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기타 조질(朝窒)⁴⁴⁾ 흥남공장의 유화철의 광물 찌꺼기를 원료로 한 제철사업, 조선이연금속(朝鮮理研金屬) 인

44) 조선질소비료의 줄임말. 1927년 일본질소비료 회사가 출자해 설립.

천공장의 제철사업 등이 잇따라 발흥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무산의 크루프식(式) 로타리키른, 조질(朝窒)의 파세식, 조선이연 금속의 레인 식 등 모두 세계 제강계의 정수를 모아 저품질 원철 또는 유화철·적철광 등을 극복하는 것인데,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일본 고주파중공업에 의해 이루어진 고주파 전격제련(高周波電擊製鍊)이라는 공업이다. 이 제련법은 제철 기술의 세계적 혁명이라 불렸고 원철의 품질을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강 일관작업에 의해 세계적인 스웨덴의 프로딘강을 능가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독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맞물려 총후 국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빈광 처리에 있어서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은 금광구의 90% 가까이 평북·함남·황해를 비롯해 13도 곳곳에 존재하고 평북의 대유동·운산, 황해도 의 웅진 이하 연산 100만 원 이상이 16곳이나 되는 성황이었다. 1937년에 수립된 산금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의 산금량을 결정하는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반도가 부담하는 양은 내·외지 종합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내지 산금계는 이미 개발 포화상태로 부진한 반면 조선은 그 계획을 순조롭게 진척시키고 있다.

석탄은 함북의 회령·경성·경원·길주, 평남의 안주, 황해도의 봉산 등을 주요 탄전으로 한다. 갈탄은 총 매장량 4억 톤, 철도용 및 가정용 연료로 환영받고, 무연탄은 전체 매장량 13억 5,000만 톤으로 평양·삼척·영월·화순·문경 등을 주요 탄전으로서 공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물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물자인 석탄도 1937년에 석탄 증산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정세에 부응해서 총독부는 1940년도를 기점으로 한 3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나아가 대동아전쟁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증산에 힘쓰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연탄은 인조석유공업 원료로서 함북 영안에 저온 건류에 의한 인조석유공업을 일으키는 한편, 아오지에 해군식 액화사업을 일으키는 등 여기에도 근대적 과학의 정수를 모으고 있다. 무연탄은 조선의 자가 공급과 함께 일본발(日本發) 송전(送電)회사의 용탄으로서 다량을 보내게 되었다. 반도에서의 석탄 증산의 성과는 실로 공영권 공업 건설의 원동력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 제일이라 불리는 함남 탄전의 마그네슘광은 매장량 30억 톤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채광설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양에 있어서 또 품질에 있어서 국내 수요는 물론 해외 수출의 여력도 충분하고, 반도에서의 마그네슘 공업의 장래는 세계적인 발전을 보이는 것으로서 각 방면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타 반도의 지하자원 중에서 4위를 차지하는 텅스텐을 비롯해 흑연·수연·형석·운모·명반석·인광·아연·중정석·전석·석탄석·규사·석면·활석·탄탈광·세일석·갈염석·만암석·주석·안티모니·코발트·니켈광까지 다양한 광물이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 내지는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것이 많다. 이러한 광물 자원은 모두 시국하에서 각광을 받으며 채굴되고 있다.

전력은 공업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반도의 중화학공업도 풍부한 전력에 의해 비로소 확보된다. 발전사업 가운데 백미는 압록강 수력발전이다. 이는 일본 제일의 긴 강에 7곳에 독을 쌓아 7개의 인조 호수를 만들어 각각 낙하하는 수력에 의해 발전하는 것인데, 1941년에 완성된 '수풍댐'은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높이 100미터, 길이 900미터, 실로 일본 전체의 철과 석탄을 모두 여기에 집중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대공사였다. 북미에 공사 중인 그랜드 쿨리를 제외하면 세계 제일이다. 종래 소련이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던 드니에프르 발전소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제일의 질소비료공업

인 흥남의 조선 질소의 동력이 되는 부전강 수력발전은 해발 1600미터의 부전령에서 서남으로 흘러 황해로 가는 부전강을 도중에서 독을 쌓아 막고 주위 수십 리나 되는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 이 물을 길이 3,000킬로미터의 터널을 통해 일본해⁴⁵⁾로 역류시켜 그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다. 모두 일본 내지와는 단위가 다른 큰 기획이자 건설이다. 그 밖에도 허천강·장진강·한강·강계·부령 등의 수력발전이 있어서 참으로 반도의 수력자원은 무진장하다. 사업 통제에 따른 전력 공급의 합리화와 더불어 발전 기술도 우리나라 발전 기술에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온 수풍을 예로 들 것도 없이 크게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무진장한 전력·적당한 지질, 풍부한 노력 등 모든 점에서 일본 내지 기업가의 큰 것을 모두 유치해서 그 공칭 자본 총액은 공업에서 약 40억 원, 광업에서 약 10억 원이고, 여기에 촉발된 반도 자본 자체의 공업 투자가 더해져서 대동아공영권의 북방권 전진병참기지 반도는 내지·조선 동포의 산업보국적 분투에 의해 그 근대적 위용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 북쪽을 보지 않고 반도를 논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처럼, 북쪽 중화학공업지대를 비롯해 경인공업지대·서선(西鮮)공업지대의 약진은 눈부시다.

화학공업을 보면, 니치쓰(日窒) 콘체른의 아성인 조질(朝窒)의 유안(疏安) 제조공업과 이와 관련된 각종 화학공업의 발흥만으로 공업 생산고 약 18억 8000만 원 가운데 화학공업 생산고가 약 6억 9,000만 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주된 제품은 부생품 유안·석탄질소·요소석고·유안·과인산·카바이드·인조석유·석유정제·면실유·대두유·당유·린터·경화유·비누·화약·재생고무·제지·인조섬유 펄프·갈대 펄프·무수 알코올·카본 등 다양하다. 회사 숫자는 계획 중인 것을 포함해서 대기업만으로도 6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기타 ○○의 쇼와비행기(昭和飛行機)·다이니혼제당(大日本製糖), 검이포의 니테쓰(日鐵) 공장, 신의주의 오지제지(王子製紙)·관사제재소(官私製材所), 영등포의 맥주공업 등이 유명하고, 제철·금 제련·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의 경금속 공업에서 선박·차량·공구·기계공작·시멘트공업에 이르기까지 공산 총액은 1940년에 18억 7,000만 원으로 시정(施政) 당시의 125배, 1936년의 2배 이상이고, 오늘날에는 그 4배 정도이다.

한편으로 식량기지 반도는 경지면적 490여 만 정보로 총 면적의 20.3%를 차지하고, 일본 내지의 15.7%에 비하면 훨씬 높다. 반도 농업의 왕좌를 차지하는 쌀은 1955년도에 3,462만 석의 산미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증산 대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의 수확량에서 50%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보리는 150만 정보, 1,300만 석, 밤은 500만 석, 대두는 400만 석의 증산을 하는데, 여기에 특기해야 할 것은 면화이다. 작부 면적 30여 만 정보, 2억 2,000만 근에 달하고, 사육 두수 3만에 달하는 면양과 함께 남면북양(南棉北羊)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장려는 시국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사과 2,200만 관, 배 550만 관, 포도 60만 관, 소 175만 마리에서, 60억 만 그루 900만 립(立)의 조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옛날의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

이처럼 대동아공영권의 북방권 전진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역할은 더욱 증대하는 동시에 일본 내지와 조선의 산업 발전은 공영권의 중핵체로서 급격히 배양되어 고이소 총독의 3대 시정방침인 생산전력

45) 동해(東海).

의 결승적 증강은 이러한 기초 위에 강력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해의 호수 시대를 가져오고 있는 반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위용은 내외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30. 한국병합 30년의 회고

한국병합의 조칙을 봉대한 지 30여 년, 그동안 일시동인과 복리증진이라는 양대 성지(聖旨) 아래 제반 선정(善政)이 시행되어 2,400만 반도황민은 모두 한없는 황은을 입고 대국민으로서의 영예를 부여받아 책무를 분담해온 것이다. 황국신민화운동의 속도는 '지나사변'⁴⁶⁾과 이번 대동아전쟁을 통해 과거 30년간의 실적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융흥을 위해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위미(萎靡)·피폐한 반도를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의 일부로서 끌어올리기 위해 역대 총독들은 반도통치에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고심을 기울였는데, 지금 그 자취를 잠깐 살펴보는 일은 무익한 일은 아니라도 본다.

반도 건설 초기에서의 지반 다지기에는 당연히 무단정치가 요청되어 데라우치(寺內) 총독은 반도의 치안 공작과 토지 정리와 법제 개혁을 단행했고, 사이토(齋藤) 총독은 이렇게 다져진 지반 위에 '문화정치'라는 이름을 빌려 4년제 보통학교 3면 1교의 구체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용, 경찰제의 개편, 관개시설과 경작지 확장을 통한 산미증식, 섬유 등의 경공업 장려 등의 제반 시책을 구체화했다. 우가키(宇垣) 총독은 이른바 '개발정치'라는 명칭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특색이 있고, 조선 북쪽(北鮮) 개척·9도 면작·면양 사육·산금장려에서 심전(心田)개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개발주의를 물심양면 철저히 했으며, 미나미(南) 총독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황국민신화 정치'라는 존칭을 증정받았을 정도로 반도 2,400만 민중의 황국신민화 시책, 가령 내선공학(內鮮共學) 원칙에 기초한 국민학교 1면 2교주의 촉진, 국방적 책무의 분담을 허용하는 특별 지원병제와 징병제의 실시, 일본 내지와 조선 공통의 가족제도 구현을 위한 창씨제도의 실시, 대공업의 농촌분산화에 의한 농공병진(農工並進) 정책의 구체화가 이루어졌다. 고이소(小磯) 총독 취임 이래는 종래에 형태만 갖추어진 내선일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서정집무의 쇄신·황민수련의 철저·생산전력의 증강 등을 통해 '도의조선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조선의 인구는 병합 이래 1,0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나 대흉작에도 한 명의 아사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은 바로 대어능위(大御稜威) 덕분이며 역대 총독의 고심에서 나온 선물이다.

또한 일반 산업 방면에서도 종래에는 전체 인구의 80%가 농민이고 전체 생산물의 80%가 농산물이었으며, 전체 수출품의 80%가 농산품이 차지하고 있던 반도도 국책적인 산업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점차 공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시경제와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제는 반도를 중공업 화하고 또 남방 물자의 공업적 소화의 토대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 보고(寶庫)의 개발과 공영권 건설의 급속한 추진에 의해 반도인 기업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한때는 약간의 소요·마찰도 있었지만 역사의 큰 바퀴는 거침없이 궤도에 널려 있는 장애물을 짓밟

46) 중일전쟁.

으면서 회전하고 시시각각 내선일체 완성의 대궐도를 진행하고 있다. 한때의 사상적 조류, 가령 공산주의·민족주의·자유주의 방면의 사람들은 모두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전향을 완성하고 바야흐로 반도는 구름이 걷힌 것처럼 명랑해지고, 지원병도 3,000명의 모집에 25만 명이나 응모했으며 대동아전쟁 발발 3개월 만에 500대가 넘는 비행기를 헌납했다. 이제 징병제·해군특별지원병제·학도지원병제 등의 실시와 더불어 반도황민은 부름을 받아 천황의 방패가 되려는 순국정신에 불타고 있다.

31. 동문동조(同文同祖) 동(同) 운명의 내지와 조선

일본 내지와 조선은 같은 조상 아래 발전하는 민족이다. 신화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인종적으로 고찰해서 내선동조론(內鮮同祖論)은 오늘날에는 이미 정설이 되었다. 반도도 일본 내지도 남양족과 아이누족의 피가 각각 혼합되어 있는데, 우리 혈액의 주류는 천손(天孫) 민족을 중심으로 이러한 동화(同化)인종의 혈액이 혼합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반도민족은 대일본민족 속에 포함(抱合)되고 순화되어야 할 운명에 있으며, 또 필연적으로 역사는 이를 해결해줄 것이다.

내지와 조선은 수천 년간 동일한 문화를 통해 자라고 있다.

먼저 언어에서 유사한 조어법과 조합으로 되어 있고, 현대에서조차 공통된 단어를 갖고 있다. 이는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고서를 통해 고대의 내지와 조선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형적을 다분히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나 중국에서 발흥한 정신문화(불교나 유교)는 대부분 조선 반도를 경유해서 내지에 전파되었으며, 삼한시대의 미술공예의 정수도 내지에 상당히 전수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메이지유신 이후는 일본열도에서 교차하는 동양의 도의적 정신문명과 서양의 과학적 물질문명은 간나가라(惟神)의 문화를 기초로 일본이라는 위장 속에서 완전히 소화·통합되어 물질양면 일대 문화대계를 완성하고, 이 새로운 일본문화는 반도를 전진 문화기지로써 역으로 대륙에 전수하고 있다. 그 근저를 이루는 것은 물론 일본정신이고, 일본정신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대륙에 선양되고 있다. 현재 일역의 국민은 이 일본정신을 영혼으로 삼아 고도로 발달한 일본문화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역사적으로 기밀한 국교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의 석탈해왕(昔脫解王)이나 그 신하 표공(瓢公)의 도래, 신라의 제1대 박혁거세왕의 왕자 천일창(天日槍) 등의 일본 귀화, 임나(任那)에서의 일본부(日本府) 설치, 백제 왕자 및 왕인박사의 귀화와 논어와 천자문의 전수, 삼한시대의 집단적 이주·귀화, 간무천황(桓武天皇)의 모친이 백제에서 귀화한 왕족이라는 점, 일본·백제의 동맹에 의한 신라·당나라의 연합군과의 대치, 백제·고구려의 멸망 후의 이주 왕·후족들의 우대 등, 고대의 내지·조선 간의 밀접한 우호관계는 완전히 형제국의 호의(好誼)와 같이 그야말로 영구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고대에 천일창의 원손에 해당하는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신라정벌이 있었고 중고에는 원나라·고려 연합군의 일본 진공이 있었으며, 이조 중엽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정벌 등 다소 호의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결코 태고의 심연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청전쟁을 통해 일본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그 구체제적 지배에서 독립시켰고, 일러전쟁을 중심으로 한 흥아대

전(興亞大戰)을 계기로 일·한 양국은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동양의 공동방위에 임했다. 그리고 1910년 일진회(一進會)의 100만 명 연서탄원은 마침내 보답을 받아 한국병합의 대조칙(大詔勅)이 내려져 동양의 영원한 평화 수립의 기초 공작은 완성되면서 일본 내지와 조선은 새로운 대일본에 재결합된 것이다.

또한 아시아 부흥의 영도를 통한 팔굉일우의 대이상의 구현을 위한 세계사적 대사명은 내선일체의 완성을 그 선결조건으로서 강요하고 있다.

19세기는 앵글로색슨 전성시대였지만 20세기부터는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번영시대로 세계사는 전환하고 있다. 저 일청전쟁은 백인의 침략에 각성하지 못한 청국 봉건세력에 대한 일격이었고, 일러전쟁은 백색인종의 동양침략에 종식을 고하는 동시에 아시아 민족에 반(反) 백인적 쫓기를 촉진하는 선구였다. 만주사변은 동양인의 문제를 동양인 자신이 해결한다는, 구미제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나사변 및 대동아전쟁은 대동아에서 구미의 침략주의를 내몰아 일소하고 대동아인의 대동아 건설을 완성하려는 성전이다.

그리고 한국병합도 만주국의 독립도 새로운 중국 건설도, 나아가 버마나 필리핀의 독립도 동인도의 건설도 인도의 해방도 모두 아시아 부흥의 대성업이다. 그러나 세계 신질서의 수립을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전도요원하고,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의 중도에 서 있는데, 내지·조선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지도국민으로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결의로 나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한 4대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동문동조, 같은 운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내지·조선의 동포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서 소승적인 민족적 편견을 완전히 일소하고, 특히 2,400만 모두 천황폐하의 수족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일역일심·일체의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내지·조선은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기구에서 하나의 혈맥을 통한 동체(同體)를 이루고, 현실적인 경제적·문화적 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을 운명으로 갖고 있다.

반도인은 더욱 많이 제일선에 나서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나라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반도황민은 수천수만 명의 호국의 영령들을 야스쿠니신사에 보내지 않으면 내지의 동포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 2,400만이 모두 이러한 열의에 불타는 때에 비로소 내지·조선의 약간의 거리가 제 거되는 때이다.

바라지 말고 먼저 충성을 다하라. 내지·조선은 혈맥이 통하는 운명공동체이다. 천황에게 귀일하고 팔굉일우의 건국정신의 현현에 매진할 따름이다.

32. 대동아전쟁과 우리의 각오

인류 평화 파괴의 총본영으로, 오만무례함에 있어서는 고금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폭력한 미국에 대해 황국이 한 번 일어나 정의의 대철퇴를 가하자 그 공포적(空砲的) 허풍과 어울리지 않게 전함과 항공모함 대부분이 태평양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리하여 제3류 해군국으로 전략한 미국은 완전히 바다에 주저앉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동시에 황혼의 미광이 마침내 사라지려고 하는 영국은 미국의 여위(餘威)에 기대어 불손한 짓을 한 탓

에 이제 그 국민은 제2의 유대적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망운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미·영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장제스(蔣介石) 정권의 운명도 이미 절박한 상태에 도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이른바 ABCD진은 허망하게 격쇄되어 태평양의 제해권(制海權)은 완전히 우리에게 돌아왔고, 대동아에서의 그들의 아성은 모두 일장기 아래 대동아에 환원되어 바야흐로 10억의 대동아 형제들은 긴 시간의 미·영의 유린 속에서 해방되어 황국 일본의 지도 아래 대동아공영권 내에 재탄생하게 되었다.

전 인류는 대동아전쟁에서의 미·영의 참패에 의해 추축군 측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세계 신질서의 건설은 이로써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황국이야말로 인류를 혼란 상태에서 구제하는 세계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세계에 비할 바 없는 팔굉일우의 건국정신에 따른 것이며, 만방으로 하여금 각자 그 직분을 갖게 하고 민심으로 하여금 각자 평안을 찾게 하는 황도의 현현이다.

결전 반도의 2,400만 황민은 미·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백으로 총진군하고 있는데, 최근 반도에 들끓는 애국열은 지원병 군속으로서의 제일선에 중군, 혹은 징병제 실시를 위한 청년 특별 연성, 혹은 생산전력의 결승적 증강을 위한 증산전, 혹은 비행기 헌납, 낫쇠그릇 헌납, 조기 개로(早起皆勞) 등 그 불타는 황국애는 대단하다.

공장에서 망치를 휘두르거나 광산에서 곡괭이를 내려치거나 논밭에서 땅을 파헤치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 바치는 신도(臣道)이고, 미·영에 대해 전쟁하는 산업전사의 용맹한 모습이며, 대동아 건설에 역사적 일익을 담당하는 건설전사의 모습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더욱 직역봉공에 모든 정혼을 쏟아 분투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는 폐하의 적자를 맡아서 훈육하는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교편을 잡아야 하고, 학원에서 수학 중인 학생은 폐하의 적자 연성도장으로서의 학교에서 일본정신의 파악과 체득과 과학적 지식의 연마에 노력해 황국의 정예부대가 되기 위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재학 중에 정도(征途)에 나서기 위해 정원 총궐기해야 한다. 일반 지식인과 문화인은 사상전사 혹은 문화전사로서 미증유의 사상전·문화전에 승리하게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도 2,400만은 황국신민으로서 천황폐하에 귀일하고 세계사적 창조의 위대한 역사적 국민이라는 자각에 기초하여 순충보국의 정신으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불굴의 분투를 하고 제일선에 가서는 9군신 못지않은 훈공을 세워야만 비로소 우리는 마침내 대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일억일십·일체가 되어 오로지 천양무궁한 황운 부익에 매진해야 한다.

33. 흥아건설에 있어서 반도의 사명

1) 세계사의 새로운 전회(轉回)와 새로운 흥아체제

전 인류는 유사 이래 미증유의 변혁기에 직면해 구미의 파괴적인 물질문명의 최후적 총결산을 통해 바야흐로 도의적인 황도 일본의 세계사 창조 공작에 귀일하면서 세계 신질서 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동쪽에서는 황국 일본의 직접적 지도에 의해 대동아공영권 건설이 이루어지고, 서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광역권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 신질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신질서 건설전선은 동시에 세계 전체주의전선과 국제적 방공전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구체제·구질서의 지양과 더불어 소련의 사회주의 블록도 미·영의 자유민주주의 블록도 필경 이러한 세계사 신 전회의 조류에 그 국제적·국내적 진로를 혁정(革正)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세계의 건설에서는 구미의 파괴적 물질문명이나 유럽식 패도로는 그 항구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류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여기에 세계에 비할 바 없는 황도사상과 일본정신을 우주에 방사하고 빛을 비추면서 팔굉일우의 건국이상의 현현에 매진하는 황국 일본의 영도에 의해서만 인류는 영구히 질서가 유지되고 구제받게 된다는 것은 각 국의 황국 일본에 대한 동경과 20억 인류의 일본정신에 대한 애착이 실증하고 있다.

국가체제나 무사도나 일본학 등에 걸쳐 일본정신에 많은 것을 배우는 맹방 독일의 신흥하는 모습을 보라. 패전국인 프랑스가 부흥 국시를 ‘봉사·가족·국가’라는 일본적 사상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라. 만주·중국·동인도·필리핀·버마 등의 토착민족들이 우리 일본의 지도를 희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라. 핀란드·헝가리·터키·시베리아 등에 산재하는 우리와 같은 계통의 투란인종의 황국 일본에 대한 동경을 보라. 저 소련이나 적 미·영까지 나약한 병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무사도를 종종 배우고 있음을 보라.

이와 같이 세계 인류는 세계 신질서 건설에서의 황국 일본의 영도를 희구하고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는 우리 대일본제국을 중추로 일대 전회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영원의 도의 질서를 건설하는 것은 비할 바 없는 팔굉일우의 황도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저 일청전쟁·일러전쟁은 본디 만주사변이나 지나사변 및 대동아전쟁을 통한 홍아의 성업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일역의 황국 신민은 실로 세계사 창조 의무를 부여받은 역사적 국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는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한 백색인종 전성시대였지만, 20세기부터는 우리 일본을 근간으로 한 황색인종 부흥시대로 전개되고 홍아 건설은 팔굉일우 구현 과정으로서 황도에 기초하여 아시아의 면목을 일신하는 것이며, 홍아유신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유사 이래 세계를 문화적으로 무력적으로 지배 지도해온 아시아는 대몽고의 세계정복이나 터키 등의 구라파 3대륙 제패의 흔적도 없이 과거 3세기 동안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력적으로도 완전히 백색인종의 말발굽에 유린되었다. 찬란한 정신문명은 피폐·소멸했고 무진장한 자원은 백색인종에게 강탈당했으며, 게다가 아시아 인종의 거대한 부분은 노예가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의 맹주인 우리 대일본제국은 홍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세계사적 임무에 당면하고 있다. 첫째는 황도문화를 선양해서 동양문화의 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체의 구미파의 파괴적인 사상문화로부터 아시아의 십억 민중들을 문화적으로 해방·방위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열강의 착취체제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고 공영(共榮)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적으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방위해서 일본·만주·중국·프랑스령 인도차이나·동인도·필리핀·버마·말레이·인도 등을 하나로 뭉치는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해서 공존공영의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홍아적 대사명 달성을 위해 홍아 국토 건설·천업의찬 체제·국가총동원적 시책은 홍아 추진시책으로서 국내적으로 정비되고, 이리하여 황국 일본은 황도정신 아래 거국적 황도정치·계획적 황도경제·물심양면의 황도문화의 전면적 진흥에 의해 현재 대동아전쟁 완승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제국

의 거대한 일부이자 또 대륙 전진기지로써의 반도는 황국 일본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역할을 하고 아시아 부흥에서는 어떠한 사명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일은 실로 뜻 깊은 일이다.

2) 내선일체는 흥아 건설의 첫걸음

내선일체는 흥아 건설의 첫걸음이자, 대륙 루트에 '제2의 내지'를 만드는 것이 대륙 장기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한국병합 이래 30여 년, 그동안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복리증진이라는 양대 성지(聖旨)에 기초하여 동문동조의 내지·조선의 두 민족의 일체화 공작은 순조롭게 구체화되고 있다. 내선일체는 3000년간의 내지·조선의 관계에 비추어 그 태고적부터 실현되고 있는 흔적을 응시하고, 이를 일역 국민들이 각자 체현함으로써 내지·조선 간의 감정적 장벽, 즉 민족적 우월감과 민족적 시의심의 숙청을 완성하고 일역일심·대화일체(大和一體)를 통해 한국합병의 근본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다.

내선일체 완성을 위한 노력과 속도는 이번 대동아전쟁을 하나의 전기로 삼아 위로는 성려(聖慮)와 총독의 현명한 영단과 맞물려 2,400만 반도황민의 진충보국의 적성에 의해 과거 3000년간의 실적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융흥과 흥아 건설을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반도 치안의 암적 존재였던 수만 명의 사상 관련자도 시국의 인식과 국민적 위력에 의해 모두 총량한 황국신민으로 환원되었으며, 과거의 좌익·우익의 민족해방이라는 문구는 완전히 반도황민의 뇌리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중간파의 이른바 민족 중앙자치론조차 내지연장주의에 기초하는 내선일체 운동의 조류에 씻겨나가고 말았다. 이와 같이 반도 사상계의 급격한 전환과 안정은 구미사상의 악영향으로부터의 탈피와 더불어 황도 선정의 반도 전역으로의 현현·구체화와 반도에서의 팽배한 필승적 사투에 기초하는 것이다.

총독 시정 이래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위미·피폐한 반도로서 몰심양면으로 오늘날의 상태에까지 끌어올렸는데, 거의 반세기나 □□□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의 지도적 국가의 국민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는 위정자의 노력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바이다. 메이지유신에서 조선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병합까지의 기간은 무려 50년 □□□□, 민력·민도·문화적 수준, □□ 국민적 봉공 정도에 있어서 반세기의 현격한 격차가 있는 일본 내지와 조선 간에 최단시간에 이를 시간적 거리의 해소가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이로써 흥아 건설에서의 시간적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선일체 완성이야말로 흥아 건설의 중심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황도정신의 승리에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역대 총독들의 반도 통치의 실적 중에서 내 눈앞에 비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데라우치 총독의 군정시대,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시대, 우가키 총독의 개발정치시대,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 정치시대 등을 거쳐 고이소 총독은 수양 연성의 철저한 실천·생산전력의 필승적 증강·서정집무의 획기적 쇄신을 도모함으로써 도의도선의 건설에 진력하고 있음은 우리 반도황민 모두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이러한 역대 총독들의 성지를 봉대하는 현명한 국책 수행에 의해 반도 2,400만 황국신민은 더욱 폐하의 적자로서 연성하고, 내선일체는 점차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30년간을 회고하고 우리는 미래의 30년을 전망하며 크게 낙관해야 한다. 조선은 결코 구미 제국

주의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내지의 분신'으로서 대일본제국의 한 지방이며, 홋카이도(北海道)나 규슈(九州)나 시코쿠(四國)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세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 반도 2,400만 황민은 흥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동문동조(同文同祖)이자 현실적으로 혈맥이 통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내지·조선 두 민족은 반드시 같은 □□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중핵체가 되어야 할 운명공동체이고, 만주에서의 민족협화나 중국인의 동아협동체에 대한 태도와 자연히 다른 까닭이다.

고대에서는 부락의 통일을 통해 소국, 가령 가야도 신라도 백제도 각각 수십 부락의 통일로 만들어진 소국이 성립했고, 중세에는 소국이 통일되어 대국-가령 삼한의 통일에 의해 조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나아가 근대적 통일-한국병합-을 통해 국민적 생활권이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대동아공영권이 되는 것은 도리어 역사적 필연이고, 만약 이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할 봉건적 분립주의자이다. 시험대 위에서는 시험이 끝난 내선일체야말로 흥아 건설의 첫걸음이고 우리는 먼저 이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병합의 조직 속에 황송하게도 메이치천황은 "여기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기로 한다. 한국 황제폐하 및 그 황실 전원은 병합한 이후에도 상당한 우대를 받아야 하고, 민중은 직접 짐이 수무(綏撫) 아래에 서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고……동양의 평화는 이로써 더욱 그 기초를 공고하게 되리라는 점을 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조직에 의해 한국병합이 구현된 것이므로 신민인 자는 그 누구라도 내선일체에 대해 비판·반대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로지 반도 황민의 순충 정신을 배양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소질을 연성할 따름이다. 이 황국신민적 연성의 성공은 이미 시험이 끝났다. 따라서 동양평화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병합의 성령 대로, 완전히 결실을 맺어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한 대동아전쟁에 반도의 청년 학도들은 천황의 방패로서 용맹하게 출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황민은 대동아공영권의 중핵체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팔굉일우의 건국이상의 구현에 기여·공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반도의 역사는 내선일체에 의해 혁명되었고, 그리고 신생된 것이다. 거기에 만들어진 섯덩이 같은 기반 위에 일시동인이라는 황송한 성령을 봉체(奉體)하고 승리의 영광으로 찬란한 대동아 건설전·세계 신질서 건설전의 피안으로 반도의 청년 학도들은 용맹하게 총진격하고 있다. 일역일심동체가 되어 역사적 필연인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도의세계의 건설에서의 역사적인 지도적 국민으로서 우리는 지금 진군하고 있다.

3) 흥아 건설에서의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반도

일본 내지와 조선 간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고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조선반도와 일본 열도는 단지 일본해와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고, 해·공·육의 교통기관이 발달한 현재에는 마의 일본해도 거친 현해탄도 순식간에 정복되고 도쿄와 신징·베이징 간조차 단 하루의 거리로 변했다. 이와 같이 근접한 반도는 동시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대륙 루트에서의 전진 병참기지로서는 실로 천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병기의 경이적 진보와 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대, 아무리 내지·조선 간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아시아 대륙 부흥전의 진전에서 내지·대륙 간에 펼쳐져 있는 해상 교통 운수에 공중 및 해저에서의 방해와 위협을 전혀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무적함대나 무적공군의 활약, 요새의 완벽이나 방어망의 완벽 등 수많은 대책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대전에서의 대략의 군수·민수의 수송에 시간적·작전적 효과를 완전하게 확보하고, 또는 해상경계에 필요한 병력을 다른 방면에 유효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병참기지를 대륙에 전진시켜 대륙에서의 대량적 군수·민수의 자급자족을 도모하는 것이 국방상 만전의 대책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대동아에서는 해상수송로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 병참기지를 대륙의 일각이자 북방의 □□작전의 배후를 이루는 반도, 게다가 치안·인심·기술·노력 등에서 30년의 장점을 지닌 반도에 설치하는 것이 작전상 유리함은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바이다.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우리 반도는 대 중국 작전군 등에 대해 군량·군수를 상당량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소의 공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설령 홍야 작전군에 대한 내지로부터의 해상수송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도, 반도의 능력만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반도의 전체 산업분야를 다각적으로 진흥시키고, 특히 농공병진 정책의 적극적 진전에 의해 군수생산의 확충에 모든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전 경제체제하에서 반도로 하여금 식량증산에 의해 국민 식량의 자급자족 및 저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끔 노력하는 동시에, 면화·양모·목재·정어리유 등의 농목립업 및 수산업 등의 원시산업을 더욱 개발하고, 그리고 국내 산업기구의 지리적 분포 상태를 국방적 견지에서 대응적 국책의 선에 따르게 하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중공업·정밀기계공업·화학공업 등의 국방적 기초산업의 고도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전면적 구체화에 황도국민경제의 건설을 통해 한편으로는 반도의 농어촌 및 도시에서의 2,400만 황민의 후생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대동아공영권 개발에 의한 전력증강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광의의 국방과 자원의 총동원적 개발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 전반의 수요 충족에 부응하고, 때로는 대륙에서의 군수·민수를 반도가 독자적으로 떠맡는 데까지 도달한다면, 홍야 산업의 급속한 진전은 물론이고, 반도 2,400만 황민의 민력·민도의 고양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물적방면에서의 내선일체의 구현책이다.

이 국방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금융재정 방면의 원활을 꾀하고, 공업 예정지를 준비해서 지가의 폭등을 억제하고, 전력 등의 동력 및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철도·항만·항로·도로 등의 교통 운수기관을 정비해야 함은 수많은 인사들이 하나같이 주창하는 바이다. 반도의 병참기지적 역할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적 특수사정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지·조선은 완전히 동일한 통제경제를 강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시의 고도 국방체제에 대응하는 일은 지난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시대의 여독이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반도 2,400만 황민은 단지 반도의 병참기지적 경제 건설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대동아공영권 내에서의 개발에 협력하고 또 지도할 때까지 산업전선의 총동원을 해야 한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아시아이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인 아시아 인종은 궁핍에 안주하면서 자원의 대부분

을 백색인종의 배를 불리는 자원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닌가. 십 수억의 아시아 인종을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대동아공영권을 완성하기 위한 추진력으로서 반도의 산업전사는 단련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자원개발에서 산업·금융 및 기술 등의 원조와 지도를 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흥아 건설에서의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사명을 광의에 있어서도 협의에 있어서도 완수해야만 한다.

4) 흥아 건설에 있어서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반도

반도는 흥아 건설에서의 전진 병참기지로서 황도문화의 발양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의 신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일체의 종교의 기원이 아시아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정신문화의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인도에는 불교가 망했고, 중국은 공자·맹자·노자의 도를 버렸으며, 유태는 망해서 기독교는 구미인의 종교가 되었고, 마호메트교도 이제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시아 인종이 고대에서부터 노력해온 영적 생활의 건설은 서양의 물질문명에 의해 소멸했고, 이제 아시아는 광활한 사막과 더불어 정신계의 황량한 피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퇴영에도 불구하고 홀로 황국 일본만은 그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황도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반도는 고대에는 대륙의 정신문화를 일본열도에 전한 전진 문화기지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는 역으로 황도문화의 대륙으로의 전진 문화기지로서의 사명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일본 내지·조선 간에는 같은 조상 아래 발전하는 관계상 신대(神代)문화는 완전히 동일했으며, 다소의 문화적 차이를 거쳐 현대에 다시 동일 문화를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도의 문화적 기지로서의 능력을 다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까닭이다.

내지와 조선은 먼저 언어에서 유사한 조어법과 조합으로 되어 있고 현대에서조차 완전히 공통된 단어를 갖고 있다. 『고사기』나 『만엽집(萬葉集)』 등을 통해 고대 내지와 조선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흔적을 다분히 엿볼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최근 국어의 사용과 보급 상태는 너무나 더디다. 문화적 생활에서 절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언어의 공통이다. 고대에서의 내지·조선 간에 언어가 동일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면서 반도의 모든 기관 각종 단체를 총동원해서 국어강습회를 열어 국어사용을 신속하게 구체화라는 일은 내선일체의 촉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도 2,400만 황민이 황도문화를 그대로 반도에 옮겨, 나아가서는 이를 대륙에 추진 발양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고대의 내지·조선의 문화교류의 역사적 사실로서는 가야국 김수로왕과 신라의 석탈해왕과 그의 신하 표공의 도래, 신라의 제1대 박혁거세왕의 왕장 천일창의 일본 이주, 임나에서의 일본부의 설치, 백제 왕장 및 왕인박사의 귀화와 논어·천자문의 현상, 간무천황의 모친이 조선의 왕족이었다는 점, 일본·백제의 동맹으로 당·신라 연합군과의 대치, 천일창의 원손이신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백제·고구려의 멸망 후 왕·호족 및 집단적 귀화인 이주, 나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전쟁 등의 '역사적 계기'를 중심으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부여·경주·김해 등에서의 사적(史的) 관계나 무사시노의 개척,

교토·나라 등의 사원·고적에 나타는 내지·조선의 문화교류 자취, 고마신사, 센소지의 유래 등에 의 해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지·조선 간의 밀접한 문화적 관련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반도는 인도나 중국에서 일어난 정신문화, 가령 불교나 유교를 내지에 전하고 또 미술 공예의 정수를 전수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정신이라는 소화제로 완전히 일본적으로 소화해서 그 정수만을 혈액으로 섭취·보유한 것이다. 따라서 대륙의 정신문화의 포용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대륙문화의 장점을 포함·섭취해야 함은 일본정신의 특질에서 보 건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서양의 물질문명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근세적 개화에 일단 기여했 는데, 이 경우에도 물질문명은 일본이라는 위장 속에서 유감없이 소화되어 그 정수를 골격으로 채택하 고 그 찌꺼기는 깨끗하게 배출했다. 따라서 일본열도에서 교차하는 동양의 도의적 정신문명과 서양의 과학적 물질문명의 정수는 때로는 혈액이 되어 물질양면의 일신 문화체계 곧 황도문화의 완성(完整)이 되어 발전해서 역으로 반도를 대륙으로의 전진 문화기지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과거의 정신문화 에서의 봉건성과 물질문명에서의 파괴성을 초극·숙정한,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황도문화는 현재 세계 의 파행적 문화의 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황도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화 건설은 반드시 대승리를 거두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정 이래 30여 년간 황도정신을 기조로 한 일본문화를 호흡한 반도황민은 황도문화연구소의 설립, 연극·영화·라디오·신문·잡지 등을 통한 황도문화의 발양, 황도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전사의 연 성 등을 하면서 비(非) 아시아적 문화세력을 내몰아 일소하고 아시아 대륙에서의 황도문화권 건설의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흥아 건설에서의 전진 문화기지로써의 반도의 사명이다.

5) 아시아 해방에서의 반도의 전위적 사명

백색인종의 지배와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정치적으로 해방·방위하기 위해서는 반도는 황국 일본 의 일부로서 그 전위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제정러시아는 황기 2240년(1580년)부터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의 땅을 개척하기 시작해서 황기 2520년(1860년-역자)까지 흑룡강 이북과 우수리 강 동쪽의 시베리아 전역의 침략을 완성했다. 동양의 보고이자 신앙의 나라였던 인도는 황기 2518년(1858년-역 자)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도 버마도 해협식민지도 홍콩도 영국령이 되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황기 2525년(1865년-역자)에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이를 전후로 해서 말레이군도는 네덜란드의 영유가 되었으며, 필리핀은 스페인을 거쳐 19세기 말에 미국에 넘어가게 되 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10억의 아시아 인종에 의해 경영되고 개발되고 방위되어야 하는 낙토이다. 아시아 는 반드시 부흥되어 대아시아공영권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대동아공영권 건설은 흥아 건설의 제1 단계에서의 성업이다. 우리는 결코 백색인종을 인종적으로 배격하려는 봉건적·보수적 관념에서 아시 아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백색인종의 말발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독자적인 발전과 인종적 평등을 쟁취하는 것을 아시아 부흥의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

나 이 역사적 위업은 아시아 민족들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황국 일본을 10억의 아시아 민족의 맹주로서 추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반도황민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아시아 해방에서의 지도자인 영예를 갖게 되는 셈이다.

우리 일본은 1894년의 전쟁을 통해 백인의 침략에 각성하지 못한 청국 봉건세력에 일격을 가하고, 동시에 반도도 청국의 지배하에서 이탈했다. 1904~1905년 전쟁을 통해 백색인종의 동양침략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아시아 민족들에게 반백인적 꺾기의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반도도 일한 공수동맹의 체결도 당시 거문포·용암포·마산 등의 점거와 반도 분할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편, 일본의 흥아 대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동양의 영원한 평화 확립의 기초 공작으로서 일·한은 역사적 합병을 하고 내지·조선 두 민족은 고도의 일본민족으로서 포함하였다. 그 이후 1억의 내지·조선 두 민족은 동심일체가 되어 모든 흥아적 성업에 함께 임하게 되었다. 만주사변을 통해서서는 동양의 문제는 동양인 자신이 처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면서 만주국을 창조한 것이고, 이번 지나사변 및 대동아전쟁을 통해서서는 구미 의존주의의 비아시아적 장제스 정권 및 이를 조종하고 중국의 분할을 꾀하려는 미·영 등의 음모를 분쇄·일소하면서 대동아인의 대동아공영권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대부분은 여전히 백색인종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황국 일본의 정치적 원조 공작에 의존해야 할 민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된 것으로는 3억의 민중이 신음하고 있는 인도나 우인(愚人)의 낙원 오스트레일리아, 신장(新疆) 외몽고와 더불어 대동아에서의 적극적 방공공작 및 중서(中西) 아시아의 문제가 남아 있다. 아시아인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도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치적 원조공작 및 지도를 백인 침략국가에서 찾지 말고 오로지 황도 일본을 맹주로 삼아 그 지도를 구해야 한다.

미래에 대아시아공영권이 완성되는 날에도 내지·조선의 두 민족은 동일한 의무와 책임 아래 동일단위로서 조직되어야 함은 종종 논한 바이다. 이리하여 1억 국민의 동심일체가 될 수 있는 황국 일본은 몽고나 터키 등의 세계정복에 이어 세 번째 세계제패, 아니 황도의 광피(光被)를 통해 팔굉일우의 건국 이상의 구현에 매진하고, 한편으로는 투란인종의 면목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위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6) 일본정신 발양에서의 반도의 전위적 사명

이 흥아 건설에 세계 신질서체제 수립에서의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는 일본정신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고, 창조적 일본의 성격은 무엇인가? 나는 다행히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니주바시(二重橋) 앞에 엮드려 건국 발상의 성지를 비롯해 전국의 주요 신궁·신사를 순례하고 곳곳의 저명한 사원 수양단에서 실천적 수양을 하고, 약진 일본의 대표적인 각 도시의 문물 일체를 시찰했다. 그래서 내선 일체는 참궁 수행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창조적 일본의 근원은 황실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간나가라(惟神)의 대도와 황도와 일본정신은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은 신을 숭배하는 동시에 황실을 신앙적으로 존승한다.

다음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일본정신의 특질을 요약하자.

첫째로, 일본정신은 우주 생성·발전의 대원리이다. 일본신화, 신칙 및 3000년간의 황도의 선양 등에서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팔굉일우(八紘一宇)’, 시간적으로는 ‘천양무궁(天壤無窮)’, 창조적으로는 ‘수리고성(修理固城)’, 도의적으로는 ‘의정대화(義正大和)’, ‘충효일본(忠孝一本)’ 등의 건국정신을 볼 수 있다. 태양이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우주는 비추는 것과 같이 현인신(現人神)이신 천황이 우주 생성·발전의 종본가(宗本家)의 가장으로서 우주의 창생을 적자로서 애무하신다. 우주 생성·발전은 우주창조를 의미하고 이 우주 끝까지 방사하는 일본정신은 항상 일체관념이다. 신인일체·군신일체·문무일체·내선일체·노사일체·자타일체 등이다. 이는 서양의 분석학적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흥아 건설도 팔굉일우도 그 어떠한 역사적 창조도 우주로의 원심적 작용과 황실로의 구심적 일체에 의해 완성된다.

둘째로, 일본정신은 오래되었고 새롭다. 일본정신의 심원은 멀리 다카야마하라(高天原) 정신·가시하라(檜原) 정신에서 나왔고, 이 속에서 자란 예술문화는 사원·불각·명성·고적 등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옛날 그대로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일본의 풍부한 역사적 내용은 일본적 형태(전통)로서의 발전적 특성을 잃지 않았다. 그 어떠한 외래문화라 하더라도 이를 일본정신으로 소화하고 발전시킨다.

셋째로, 일본정신은 웅대하고 치밀하다. 고성·불각 및 근대적 건설의 규모의 웅대함, 팔굉일우, 천양무궁의 건국이상의 무한성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황도의 세계적 광피(光被)와 도의세계의 건설로까지 추진시키고 있다. 동시에 일본 예술의 치밀성은 그 우주 크기의 건설로 하여금 만대에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창조에서의 견실성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넷째로, 일본정신은 유연하면서 가장 견고하다. 경신숭조의 관념에 살고 우미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은 신불(神佛)과 더불어 이러한 자연미를 그대로 가정·정원·생활 속으로 옮겨 놓는다. 따라서 인간성과 우미성이 풍부하다. 곳곳에 꽃이 있어서 꽃과 더불어 웃는다. 곳곳에 신사가 있어서 신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리고 부드러움은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노도와 같이 물결치는 일본이다. 일단 위급한 경우에는 노도와 같이 국난을 씻어내지만, 이 경우의 일본 국민의 애국심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분쇄할 수 없다. 한 번 웃으면 어린아이가 따르고, 한 번 화내면 천지가 요동치는 성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일본적 특성이 있다.

이처럼 원심적이자 구심적이고, 대이면서 소이고, 오래되었으면서 새롭고,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바의 모순된 극단이 동시에 성립하고, 이원적 작용이 동시에 작용하는 바에 일본정신의 세계성과 포용성이 있으며, 대립하는 양 극단을 더욱 높은 곳에서 통합·조화하는 바에 일본정신의 특질이 있다.

국가적 대혁신은 항상 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이카개신(大化改新)·젠무중흥(建武中興)·메이지유신·홍아유신 등에서 역력하게 드러나는 바이다. 황실의 성덕을 받드는 만민들 사이의 대립은 황도 아래 해소된다.

창조적 일본의 근원은 국체 본의의 투철을 통해 규명하고 일본적 창조의 추진력인 일본적 성격은 일본적 생활을 통한 일본정신의 체현에 의해서 구하고, 일본적 재출발은 황도 일본의 건국정신의 재확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시에 팔굉일우의 건국정신 구현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적 대창조를 향한 진군이다.

여기에 반도 2,400만 황민이 황도정신 발양에서의 전위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아시아 황도권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일본정신연구 기관의 설치, 국민적 참궁(參宮) 수행, 황민도장의 증설, 일본적 생활의 확립, 사범교육의 철저, 중견 지도층의 황민적 연성 강화 등으로 일본정신의 체득에 노력하고, 이로써 황송하게도 천황폐하에 대해 받드는 적성으로 충의를 다하는 데까지 도달한다면, 당면한 황민적 수련기의 임무는 끝난다. 따라서 반도의 일본정신 발양의 전위적 역할을 완료할 수 있다.

이리하여 신흥아체제하에서의 조선의 사명은 국내적으로는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어 거국적 결전체제를 완성하고 흥아 건설에서는 전진 병참기지적 사명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시아 민족들의 하나로 뭉치는 신체제를 확립하고, 이로써 아시아 낙원 건설을 통한 팔굉일우의 구현에 매진함으로써 고차원적 다카야마하라(高天原)의 건설에 임하는 것이다.

반도 2,400만 황민들이여! 보무당당히 영예로운 고차원적 다카야마하라 건설에 진군을 계속하라.

34. 반도황민의 정신적 수련의 완성

결전하의 증산·저축·결전 생활·배급 등 너무 다망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지만,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이와 병행해서 정신적 수양 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력증강은 안 된다. 적 미·영도 나날이 태세를 다시 정비해 칼날을 세워 저항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영혼의 수련에서 결코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나날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또 정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기차·기선·자동차 등이 달리는 것은 원동력인 연료가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크리트를 다지는 것은 단순히 모래나 자갈이 아니라 시멘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력은 이 원동력인 원료이자 시멘트이다.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또 이를 다지는 것은 정신력 이외에는 없다. 황국 일본이 단연코 세계 각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정신력이고, 이것이 있기에 백전백승, 적을 항상 굴복시키는 것이다. 또 황국신민인 이상 물질 편중의 구미와 달리 이 정신력의 개척은 무한할 터이다.

그렇다면 이 정신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야마토 다마시(大和魂)이자 일본정신이다. 순충정신이며 황국애이다. 반도 2,400만 황민에게 이 순충정신과 황국애를 투철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반도 2,400만의 황민적 자질의 배양·연성이요 결전하의 전력증강의 근원이며, 고이소 총독이 제창하는 도의조선 건설의 길이다.

이 순충정신을 함양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지도층은 미소기 연성을 통해 몸소 이를 체득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은 특히 궁성 요배·신단 배례·정오의 묵념·황국신민의 서사 제창·국가 봉창·국기 취급·국어 상용 등 몇 년 전부터 장려하고 있는 것을 매일 생활에서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로, 미소기 연성은 지금은 조선 어디를 가더라도 각 군과 면 직원들까지 수차례 하고 있고, 부락 연맹 이사장·애국반장까지 미소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나도 부족하나마 금강산 도장에서의 각 문화단체 대표자 미소기 연성회를 비롯해 지방에서의 군청·경찰서·면 직원·교원·구장 등의 미소기 연성을 도왔다. 여기서 매우 감격한 것은 군수·서장·면장들의 열성적인 모습이었고, 노인층의 신에게 다가가려는 진지한 태도였다. 하루에 8흡의 죽, 매일 연속되는 정좌, 강렬한 신업(神業), 행군 및 근로봉사 등에 인간의 정신력·체력이 그렇게까지 위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모두 태연히 고행을 계속하는 점에 황국 일본의 강인한 저력이 배양되고 간나가라(惟神)의 태도에 서서 용감히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적 지도자로서의 완성 방법은 미소기 수행이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고이소 총독각하를 비롯해 각 도지사·장관도 모두 술선해서 미소기를 하고 있으며, 적어도 지도자를 자임하는 사람은 미소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으로 아침의 궁성 요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근래 아침 사이렌이 울려도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는 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불과 30초라는 시간만이라도 충성심으로 궁성을 요배하지 않는 자가 바쁘다며 소란을 떠난다. 이런 자에게 전력증강이라든가 증산은 바랄 수 없다. 아침에 기상하면 얼굴을 씻고 옷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뒤 개별적이든 애국반 단위나 부락 단위든 간에 본심에서 궁성을 요배해야 한다. 이것이 신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며 국제 본의의 투철도 결국 여기에 귀착한다. 지방에는 4년 전부터 궁성 요배를 하고 있는 애국반도 있고 집집마다 궁성 요배 제단을 만든 곳도 있었다.

셋째로는 신사(神社)·신사(神祀) 참배이다. 신사·신사 앞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예배를 하고 통과해야 한다. 이는 경성에서도 최근 제법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비교적 철저하다. 용인군에 갔을 때의 일화인데, 어둑어둑하게 해가 질 무렵에 내가 신사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국민학교 5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어둑 속에서 똑바로 서서 신사에 예배하고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여기에 신사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예배하고 통과한 적이 있다. 이 소년 못지않게 우리도 신에 대한 신앙심을 더욱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인신이신 천황폐하에 대한 신앙적 충성심도 여기서 솟아 나온다.

넷째는 다이마(大麻) 봉재(奉齋)와 신단 예배이다. 여전히 다이마를 봉재하지 않는 가정이 있고 봉재하고 있어도 기울어져 있거나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도 방치해두는 가정도 호별 지도를 할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신단 청소를 하고 한 잔의 물이라도 진심으로 매일 아침 올려야 한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가족 전원 “오늘도 무사히 봉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신단에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신곡(新穀)은 물론이고 월급 생활자라면 21일이 되면 월급봉투를 먼저 신단에 바치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예배를 올리고 나서 받아야 한다. 만물은 전부 신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한 끼의 밥도 신께서 주신 것이다. 신은 우리를 천황의 방패로 삼으시기 위해 신의 분령(分靈)인 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신에 대한 감사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은혜를 현인신이신 천황폐하를 받들어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이런 정신에는 암거래도 없고 매점도 없다. 부정도 없고 불평불만도 없을 것이다.

다섯째는 정오의 묵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까닭은 대어능위 아래 수많은 황군장병들이 태평양을 피로 물들이고 앓쓰의 차가운 섬에 옥쇄(玉碎)하고 열대의 정글에 뼈를 묻으면서 적을 격쇄하고 황토(皇土)를 방위하고 있는 덕분이다. 영령에 감사하고 황군장병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총후의 봉공을 다짐하며 묵념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오 사이렌이 울려도 모른 척하고 있는 자는 없을까.

여섯째는 황국 일본을 표현하는, 우리 일역의 혼의 상징인 ‘일장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다. 적어도 축제일·대조봉대일 등 국기를 게양할 때는 각 가정에서 호주는 가족 전원의 경례 아래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문 앞에 내걸지 말고 경건한 태도로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국기에 대해

경례하면서 계양해야 한다.

일곱째는 ‘기미가요(君が代)⁴⁷⁾ 및 ‘황국신민의 서사’를 국어 보급과 더불어 국민 전체에 암기시키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켜 진심으로 봉창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는 국어의 상용이다. 먼저 국어를 이해하는 자들끼리는 반드시 국어를 사용하고 일반 국민의 국어 강습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어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오하요우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와”, “아랏샤이마세”, “사요나라”라는 다섯 가지 인사말은 국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선일체의 완성, 징병제 실시에 있어서 이 국어 상용 문제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하기 위해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일을 매일 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황도사상·황민생활의 건설이라 할 수 없다. 바빠서 못할 일은 없다. 궁성 요배·목념·신단 예배 등의 시간을 합산해도 5분 이내이다. 정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 이 짧은 시간의 실천을 매일 진심으로 반복할 때 우리 황민적 자각은 더욱 깊어지고, 이 자각은 더 나아가 호미나 낮이나 곡괭이나 망치를 휘두르며 일을 할 때에도 나타나 전력이 증강되는 것이며, 우리 자식들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훌륭하고 강한 황민으로서 성장 봉공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도시에서는 황국 상인도(商人道)가 되고 농촌에서는 황국 농민도(農民道)가 되며, 결국 도의조선이 건설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성’과 ‘진심’으로 친절하고 겸허한 태도로 솔선수범함으로써 반도의 2,400만을 모두 대동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 또 세계 역사 창조의 역사적 국민으로서의 자질 연성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대동아공영권의 중핵체인 황국 일본의 거대한 일부를 이루는 반도황민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리하여 반도황민은 천황에 귀일하고 순충보국의 정신으로 천양무궁한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

후기

이 책은 최근 수년간 각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줄고를 주로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전후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모두 황민 생활의 실천을 기초로 하고 또 조선 전체의 실천적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인데 다소나마 황민 생활 건설의 보탬이 되면 다행이겠다.

〈출전 : 金子斗禎 『半島皇民生活物語』, 朝鮮思想國防協會, 1943년〉

47) 일본 국가.

4. 김병태(金秉泰)

1) 전시체제에 순응할 마음의 무장 필요, 촌각도 이완은 절대 불허한다

평남 참여관(參典官) 김병태

건곤일척(乾坤一拓)하여 이에 만중(萬衆)이 새롭고 서기(瑞氣) 충만한 1938년 신춘을 맞이함에 당(當)하여 성려무변(聖廬無邊)하옵시기를 봉사(奉祀)하는 동시에 성전에서 분투하는 황군장병의 무운장구를 축복해 마지않는 바이다.

지난 해 7월 노구교 부근의 총성 일발로써 정의의 거화(炬火)를 든 것은 동양의 평화를 초래하고자 하는 우리 제국의 불변국책의 제1보인 것은 일반이 공지하는 바이다. 성전을 개시 이래 오토(烏兔) (○忙)에 반려누상에 달하도록 저 가림주구를 시사(是事)하는 악덕위정자와 폭려군벌의 무반성으로 전국이 확대될 뿐이었으나 충용무비(忠勇無比) 우리 황군의 신속 또 과감한 (○고(○) (○) (○) (○)에 의하여 북으로 화북일대를 (○) (○) (○) 달함에 따라 공산 마수에 (○) (○) 하였던 북지는 미몽을 자각하고 방공친일과 (○) 민입국을 일(○)로 하는 도의국가를 창건하고자 하는 임시정부의 출현을 보았으며, 남으로는 세계시장이 된 상해를 장중에 수습하고 나서 (○) 불발을 자랑하던 수도 남경을 함락한 것은 유사이래 일대 쾌거라. 황송하오나 성상폐하의 어능위와 황군의 세계무비한 용맹의 소(○)로서 다만 감격감사에 망지소조(罔知所措)일 뿐이다. 정부에서 성명함과 같이 전국의 일단락은 서기종식을 고하였으나 저 완명 폭려한 장개석의 응징을 생각하건대, 근본적 (○)을 위하여 장기항전을 불사함으로써 저 4억만 민중의 적인 장정권을 완전히 궤멸케 하고 일만중 친선으로 진정한 동양화평에 공헌코자 하는 북(○)정권을 응원하여 동아안정세력을 강화하여 평화천지를 빛나는 달과 같이 명랑화하게 하여 도탄신고(塗炭辛苦)하는 중국민중을 구원하여 도의국가의 혜택을 입게 하기까지는 지금부터 또 수일을 요(要)할 것이니 우리국민은 일층 긴장하여 충친화(○)세력으로 용왕매진할 시기에 도달한 것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평남(平南)은 사변이래 통과 군대환송 징군가족원호, 국방기재 및 기금헌납운동 등 다종의 (○) (○) (○) (○) 가진 총후수호의 의무를 실행함은 경하해 마지 않는 바이거니와, 서술한 바와 같이 시국의 중대성이 점차 가중하여가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으로서의 무장과 긴장의 기분을 촌각이라도 이완치 말고 지성으로 제1선에 분투하는 황군의 무용(○)을 기원하며 제2선으로 침투하고자하는 적화사상은 (3줄 판독불가) 증진에 노력하여 전시체제에 순응하도록 생업보국의 (○)을 (○)하는 것이 나의 책무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에 홀로 소신 일단을 피력하여 도내 대방제가의 신춘행복을 축복하며 연하여 신궤기를 요망하여 마지 않노라.

〈출전 : 金秉泰, 「戰時體制에 順應할 마음의 武裝必要, 寸刻도 弛緩은 絶對不許한다」, 『매일신보』, 1938년 1월 3일〉

5. 김사연(金思演)

1) 지나사변과 나의 각오

현재 '지나사변(支那事變)⁴⁸⁾은 성전(聖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만 4년 신동아건설과 건국의 정신에 입각해 충용무비(忠勇無比)한 우리 황군(皇軍)은 신명을 바쳐 분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충후(銃後) 국민으로서의 우리 사명 또한 중대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됩니다.

지금 유럽 정세를 보면 전 유럽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메리카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장하는 참전론(參戰論)을 실행한다면 전 세계는 전란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유사 이래의 비상시국에 있어서 동양의 맹주인 우리 제국 국민의 책임과 각오는 중대합니다.

우리 충후 국민은 각자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고 충후를 견고히 해서 이 난국을 타파하고 더욱 성전의 목적인 대동아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도록 노력해서 장기전에 따른 물자 결핍과 일상생활품의 부족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일억일심(一億一心)으로 근검역행(勤儉力行)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생산보국(生産報國)의 정신으로 많은 생산품을 보내 각자 경제전선의 전사가 되어 도리어 앞으로의 장기전을 대비하는 각오를 하고자 합니다.

〈출전 : 金思演 「支那事變と私の覺悟」, 『新時代』 1941년 7월 127쪽〉

2) 입영 학병에 부탁 - 실력을 발휘하라

우리의 빛이요, 반도의 희망의 별인 학병(學兵)이여. 모든 곤란과 시련을 거친 다음 오늘날 경하(慶賀)로운 입영의 준비를 만단(萬端) 갖추고 드디어 영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학병자신은 물론 전 반도가 가진 정성과 적심(赤心)을 바쳐 기원하던 염원이 이루어져 오늘날 이만한 성과를 얻게 된 만큼 우리의 기쁨은 다시 형언할 바 없다. 학병의 노도같은 그 힘찬 보조가 끊임없이 저 영예의 군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머리 속에 그려보며 그 힘찬 하나하나의 얼굴이 바로 나의 눈앞에 부조(浮彫)가 되어 떠오르는 듯하다. 저 아름다운 대집단을 형성한 한사람 한사람의 흥중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결의와 각오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한 단계를 거치며 알수 없는 어둠의 환영(幻影)을 물리치고 이처럼 일순(一瞬)의 장엄한 정신의 집단이 되기까지의 준열한 자기연성(自己鍊成)이 지금도 역력할 것이다. 학병은 금일의 경지에까지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짧은 시일 동안에 연마하였다. 이와 같이 고뇌를 뚫고 자신의 살과 뼈를 깎는 듯한 내적 수련을 쌓은 학병의 심경을 사회나 선배인들 직접 학병의 부형인들 어찌 추측할 수 있을까. 다만 나는 오늘 학병의 광영과 광휘가 학생 각자의 말할 수 없는 자기연성의 내적 완성을 확신하고 의심치 않는다. 이 위대한 성과는 오직 한줄기 붉은 충혼에 불타지 않고는 결코 이를

48) 중일전쟁.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형식적 과정만을 밟은 데 불과한 것이 되면 그들이 늪뚱한 면모와 힘찬 보조의 목소리가 어찌 저렇게 반도산하를 진감(震憾)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객년(客年)말 경기도청에서 열린 지원학병의 간담회 석상에서 나는 반도학병의 적성(赤誠)이 조금도 일본학도의 그것에 비하여 손색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반도의 과거와 환경을 남김없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 그대로 '지원'한 학병이 9할을 돌파할 줄은 의외였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제국신민의 1분자로 미증유의 역사적 대전환을 획(劃)하고 있거니와 아직 오랜 관습이 사회와 가정 구석구석에 뿌리깊이 잔존하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 앞에 학병이 똑바로 나아갈 목표를 잃고 잠시 순준(巡俊)하였다고 그것이 학병 자신의 죄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장벽을 뛰어넘지 않았는가. 일본은 본래 상무정신에 배양되어 온데다가 명치유신 이래 80여년 견고한 징병제로 국민의 상무(尙武)정신은 더욱 더 광채를 가(可)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일본학도에 비하면 우리 학병은 어떠한가. 이조 중엽 이후 반도사회는 상무정신을 잊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총독정치가 실시된 이후 30여 년간에도 우리는 한 번도 손에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환경과 역사 가운데 자라난 우리의 학병은 우리의 오랜 인습을 일거에 타파하고 오늘날 광영의 군문(軍門)직전까지 당도하지 않았는가. 일부에서는 학병이 쫓기하기까지 잠시동안 내적 수련과 자기 연성에 고민하는 자태를 가리켜 그들의 무능력이라든가, 우유부단이라고 꾸짖기까지 한 사람도 있었으나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의 내적 갈등을 묵묵히 극복하는 자태에 오히려 숭고한 인간적 자기연성의 자태를 보았다. 그들의 선배로서 나는 차라리 내 스스로가 이러한 역사적 창조의 시련을 경험치 못하고 그들에게 이 중대한 과제를 남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동시에 그들의 꾸준한 자기수련의 자태를 질타하기 전에 그 앞에 머리를 수그렸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학병이 남다른 험로와 난관을 돌파하는 도중에 간혹 젊은 혈조(血潮)의 탓으로 혼선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정도로 유도할 만한 아량과 관인(寬仁)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의 나의 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미래 영구히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학병이 당당히 군문으로 나아가게 된 이 사실은 나의 확신이 정당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학병에게 보내는 나의 신뢰는 무한하다. 그들은 이만한 신뢰에 대하여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였으며 장래에도 충분 발휘할 것이다.

오는 20일로 학병제군은 빛나는 영문(營門)으로 들어가 제군과 우리는 거소(居所)를 달리하면서 이 가열한 결전전국(戰局)에 돌입하게 된다. 서로 서로 몸은 전선과 총후에 떨어져 있으나 제군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용약 환성 속에 떠나는 제군의 마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도 끊어짐이 없이 굳게 굳게 맺혀 있을 것을 잊지 말라. 더구나 현하 국가 대 국가의 총력전이 지구의 전면을 뒤덮고 전진(戰塵)을 휘날리는 이때 제군들만이 제일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제군들에 지지 않을 만큼 제군들이 남기고 간 총후를 사수하고 피를 흘릴 각오이다. 학병제군아! 군등(君等)은 우리 군등의 선배가 체험치 못한 내면적 정신의 연성을 거쳐 진실로 심혼(心魂)의 혼연(渾然)한 완성에 도달한 우리들의 결정체이다. 씩씩하고 웅장하게 영문을 거쳐 제군의 진가를 발휘할 결전장으로 나아가라.

〈출전 : 金思演 「入營學兵에 付託－實力을 發揮하라」, 『매일신보』, 1944년 1월 20일〉

6. 김성수(金性洙)

1) 문약(文弱)의 고병(痼病)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보성전문학교장(普成專門學校長) 김성수

자(茲)에 조선 징병령 실시 감사주간을 맞이하여 소감의 일단을 들어 삼가 ‘반도청년’⁴⁹⁾ 제군의 일고(一考)를 촉구하고자 한다. 작년 5월 8일 돌연히 발표된 조선에 징병령 실시의 쾌보는 실로 반도 2천 5백만 동포의 일대 감격이며 일대 광영이라. 당시 전역(全域)을 통하여 선풍같이 일어나는 환희야말로 무엇에 비유할 바가 없었으며 우리들 반도청년을 상대로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특히 일단의 감회가 심절(深切)하였던 바이다.

이제 나의 30여 년간 교육자 생활의 경험으로 보건대 우리 반도청년의 소질로는 지력(智力)으로나 체력으로나 모든 것이 그다지 타인에게 낙후될 것이 없으며 때로는 기다(幾多)의 장점도 불무하나 오직 보편적으로 강의과감(強毅果敢)한 정신과 인고단련의 기백이 부족한 감이 불무한 것은 우리의 항상 통석(痛惜)하게 여기던 바이다. 그러나 그 병원(病源)을 탐구해 볼 것 같으면 결코 현대청년의 천질(天質)이 그러한 것도 아니라 4천 5백년 이래 숭문천무(崇文賤武)하던 전통하에 생육된 결과로 이문목도(耳聞目睹)가 대개 문약(文弱)은 유풍(遺風)에 젖은지라 따라서 문약은 나약(懦弱)으로 되고 나약은 마침내 진기(振起)의 기상(氣象)을 소각(消却)케 하여 범백사위(凡百事爲)에 확고불발(確固不拔) 용왕매진(勇往邁進)의 의지가 적고 오직 인순고식(因循姑息)⁵⁰⁾ 구전투안(苟全偷安)⁵¹⁾의 풍습이 제2의 습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선(善)을 선(善)으로 알기는 하면서도 감연(敢然)히⁵²⁾ 추존한 기력이 적은 동시에 자신의 악(惡)을 악으로 알면서도 단연(斷然)히⁵³⁾ 회개할 용맹도 부족하게 된 것이다. 세간에 흔히 반도청년의 결점을 말하는 자왈, 극기심이 부족하다, 인내력이 부족하다, 지속력이 부족하다, 반성심이 부족하다 운운하는 것이 전적으로 시인할 것도 아니나 또한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남모르는 심통(心痛)이었으며 이 병근(病根)을 제거 완치하는 것이 우리들 교육자의 최대 관심치이며 최대 노력점이었으나 연구월심(年久月深)한 기풍을 일시에 탕척(蕩滌)⁵⁴⁾하기도 주위환경으로 보아 또한 지난사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징병제 실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야 명실상부한 황국국민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일방으로 전 반도청년의 영예인 동시에 반천년 문약의 분위기 중에서 신음하던 상술한 바 모든 병근(病根)을 일거에 쾌치(快治)하고 거구생신(去舊生新)⁵⁵⁾할 제2의 양약(養

49) ‘반도청년’은 ‘조선청년’을 말함.

50) 낡은 관습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취함.

51) 다만 오로지 할일을 미루어 두고 눈앞의 안일을 탐함.

52) 과감하고 용감하게

53) 결연한 태도로

54) 죄명을 씻어 줌.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함.

55)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함.

藥)을 내든 것이다. 어찌 반갑지 아니하며 어찌 감격치 아니 하리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상술한 문약의 고질을 치료함에는 오직 상무(尙武)의 기풍을 조장함이 유일무이의 양약인 까닭이다. 그러나 어떠한 능라(綾羅)주단(綢緞)이라도 이를 재지봉지(裁之縫之)하여 의상을 만들어 착용치 아니하면 금수(錦繡)⁵⁶⁾의 가치가 없을 것이요, 아무리 기효(奇效)⁵⁷⁾를 주(奏)할 양약이라도 이를 전지환지(煎之丸之)하여 복용치 아니하고는 필경 그 실효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징병제 실시의 이 영예를 청년제군은 어떻게 착용하며 이 양약을 어떻게 복용하여 외관으로나 내용으로나 그 실교실예(實效實譽)를 완전히 현양(顯揚)하려는가. 무릇 의외(意外)의 영예가 돌아올 때에는 그 영예의 소종래(所從來)를 잘 생각하여 그것을 완전 향수(享受)할 준비가 없지 못할 것이며 양약이 입수(入手)되었을 때에는 먼저 잘 조리 복용하여 완전히 효능을 발휘케 할 연찬(研讚)이 없지 못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금후 제군에게 일단의 인고(忍苦)와 일층의 단련(鍛鍊)을 요망하는 바이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첩경은 어디 있으며 비방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 제군에게 지교(指教)할 것도 없이 4~5년 이래로 우리 아침저녁으로 제송(齊誦)하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辭)를 한 번 다시 되풀이하고자 한다.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하자.

이 조(條)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생존목표를 정하는 대관절(大關節)이다. 특히 조선청년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목표를 확정함으로써 제일 주안(主眼)을 삼는 것이다. 이 목표가 확립됨으로부터 만상(萬象)이 정시(正視)되고 군의(群疑)⁵⁸⁾가 해소되는 것이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이 일절이야말로 종래 우리 조선인의 정문(頂門)의 일침이다. 우리 종래의 모든 결점이 오로지 상호 신애협력을 못 하는 것과 그 결과로 10인(人) 10색(色), 100인(人) 100태(態)로 단결이 되지 못하는 바 있던 것이다. 폐일언하고 인간은 일종의 집단동물이다. 집단의 위력을 발휘치 못한다면 그 실력이 저봉의(蜂蟻)에게도 멀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집단이 즉 단결이요, 단결이 되려면 그 분자 분자가 상호 신애협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신애협력을 지분절해(肢分節解)하여 설명하려면 수천 권 수신서(修身書)로써도 부족할지 모르나 간명적절(簡明適切)히 말하라면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 일상 경송(敬誦)하는 교육칙어(勅語)의 일절(一節)을 봉독(奉讀)해 보자.

‘부모에게 효도(孝)하고 형제에게 우애 있고 부부상화(夫婦相和)하고 봉우상신(朋友相信)하라’

이 일절 중에 소위 신애협력의 전부가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특히 ‘충군’의 2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실 효(孝)도 충군의 일단(一單)이요, 우(友)도 충군의 일단(一單)이요, 화(和), 신(信)도 또한 그러하다. 신민(臣民)이 모두 상호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였다가 1일 완급(緩急)이 있으면 의용봉공(義勇奉公)하는 것이 충군(忠君)의 지상방법(至上方法)이며 우리 생활의 의미가 전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자(子)가 되어서는 자의 직(職)을 다하고 형제간에는 형제의 책(責)을 다하고 부부, 봉우가 각기 그 소처

56) 수를 놓은 비단. 또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나 직물.

57) 기이한 효험. 또는 뛰어난 효험.

58) 여러사람들의 의심. 많은 의문.

(所處)의 직책을 다하는 것이 곧 신애협력의 요체이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毅練)을 양(養)하여서 황도(皇道)를 선양(宣揚)하자.

금은주옥(金錄珠玉)도 이를 단련(煅煉) 조탁(彫琢)치 아니하면 일개 토석(土石)에 불과하고 교목거재(喬木巨材)도 이를 승(繩) 작(斫) 부(剖) 단(斷)치 아니하고는 고루(高樓) 거각(巨閣)의 동량(棟樑)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위인성자의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인고단련이 없이 생지천성(生知天成)은 바라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도 인고단련이요 둘도 인고단련이다. 저 금옥이 열화중에 용해되며 철석(鐵石)으로 조탁될 때에 그 고통이 어떠한이었으며 저 동량(棟樑)이 작지 단지(斫之斷之) 준지부지(準之斧之)할 때에 또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랴. 그 온갖 고통을 인내하였으므로 만인이 경앙하는 동량이 되며 진중(珍重)하는 금옥이 되지 않는가. 인간도 또한 절대적이므로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인고단련을 쌓아 완전 또 위대한 신민이 되어서 황도를 선양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이야 누가 모르리오만 금후의 성과는 오직 이상 서사(誓詞)의 심송체행(心誦體行)에 달렸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자타의 경성(警醒)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출전 : 金性洙 「文弱의 癩病을 버리고 尙武氣風 助長하라」, 『매일신보』, 1943년 8월 5일〉

2)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내가 지금 새삼스레 여기서 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교단에서 혹은 시시로 청년학도 제군에게 늘 말하여 온 바이지만, 제군은 학창에서 지적 수련에 노력하는 한편 굳센 윤리적 연마에 힘써 왔다. 교육은 이 두 가지 방면으로부터 제군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세계적 신질서가 건설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윤리적 방면이 일층 더 고조되어야 할 것은 제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평소부터 자주 제군에게 말하여 온 나의 생각을 제군의 출진(出陣)을 앞둔 오늘날 다시 말하고자 한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를 다하라’는 데 그칠 것이다. 의무를 위하여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늘 말하였거니와, 지금이야말로 제군은 이 말을 현실에서 몸으로써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제군은 말로 쉽사리 목숨을 바치라 운운하는 나나, 또는 다른 선배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심경에 있을 것을 나는 잘 안다. 어제 아침에도 제군을 모아놓고 교단 위에서 제군의 그 수많은 시선을 바라볼 때, 나는 다만 말로써는 표현키 어려운 엄숙한 감격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종사해 온 교육자의 양심에서 말한다. “제군아, 의무에 죽으라”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 최후의 부탁을 제군에게 하더라도 물론 제군은 이 말을 아무런 회의도 반문(反問)도 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제군은 일반 국민보다는 지적 수준이 높은 만큼 어떠한 명제에 대하여서라도 일차 마음의 반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오늘과 같이 제군이 대사일변(大死一番)의 판단을 즉석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찰나에 있어서 제군에게 맹목적 추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제군의 이와 같은 반문과 번민을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보다 잘 알고 있음을 자부한다.

자부하는 만큼 제군의 번민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에는 찬성치 않는다. 나는 차라리 제군이 이 번민을 뚫고 광명의 피안(彼岸)에 빛나는 목표를 꼭 파악할 때를 제군과 같이 기다리려 한다. 이러한 번민의 과정을 거쳐 파악된 대사일번(大死一番)의 신념만이 다른 어떠한 결의보다도 요지부동의 것일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때문이다.

그러면 “의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하는 나의 말에 대하여 제군은 당연히 어떠한 의무인가를 명시 하라고 할 것이다. 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제군을 제군의 부모로부터 훌륭히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로서 조금도 허위와 양심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중대 책임을 가진다는 이곳에 대담 솔직하게 말하려한다. 현하 우리가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 제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려는 대동아성전에 대한 제군과 우리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인 것이다.

제군은 이 땅에 생을 받아 이때까지 그만한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기까지는 가지가지 은택을 입고 있다. 국가와 가정과 사회의 은택은 모두 이것이다. 이러한 지나간 날의 은택이 제군에게 각자가 그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무거운 의무는 미래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만일 제군이 금차(今次) 대동아 성전에 치참(馳參)치 못하고 대동아 신질서 건설이 우리의 참가 없이 완수된 날을 상상하여 보라. 우리는 대동아에서 생을 받았으면서 썩은 존재로서 이 역사적 시대에 영원히 그 존명(存命)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군은 비록 이 성전의 전열로부터 빠져나와 개인의 조그만한 생명을 보전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제군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생을 받은 제군의 동생과 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군은 실로 반도의 미래에 대한 절대(絶大)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나는 생각하건대 제군의 번뇌가 현재 이 점에 부딪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순간은 제군의 그와 같은 번민과 반문을 무시하고 각일각 추진되고 있다. 대동아의 건설은 제군의 사소한 존재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매진 앞에 제군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반도가 이에 뒤떨어질 때 우리는 대동아 건설의 1분자는 그만두고 황민으로서 훌륭히 제국(帝國)의 1분자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제군이 위에 말한 의무를 다할 때에 비로소 제군은 제군이 이 땅에 살아 있을 것이고 제국(帝國)의 1분자로서 일본과 조금도 다름없는 빛나는 대우 즉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통 권리와 의무를 논할 때 서양사회에서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동양에서는 고래로부터 의무를 다하는 데 필연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황민화를 고창(高唱)하여 온 이래 제군이 자주 자신의 황민으로서의 권리를 일반 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일본은 3천 년이라는 오랫동안 금일의 제국(帝國)의 광영을 빛내는 데 온갖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그동안 30년밖에 안 된다. 3천 년과 30년의 차를 가지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군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서양인의 학설에 현혹된 잘못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한 바가 있다. 의무의 수행에 있어 시간의 장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의무의 대소는 시간의 축적(蓄積)에 있지 않고 의무 자체의 성질에 있다. 우리는 단시일일지라도 위대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인이 오랫동안 바쳐온 희생에 필적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임무를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이다.